



연결의 시대, 어떻게 배울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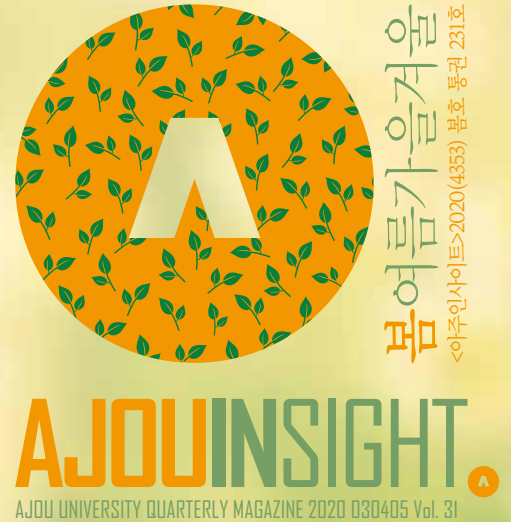
아주에 돌려드립니다 민경도 명예교수·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54인



AJOUINSIGHT.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20 Q3Q4Q5 Vol. 31



- 04 총장 기고 _ 박형주 총장
- 07 특집 리포트 _ 아주 특별한 강의
- 10 특집 인터뷰 _ 신종호 교수
- 14 특집 리포트 _ 아주 미래형 강의
- 16 특집 에세이 _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 20 괴짜 같은 진짜 _ 강진모 아이티센그룹 회장(물리 88)
- 23 휴먼캠퍼스 _ 학부모 김정화 & 학생 정용훈(응용화학생명공학과)
- 24 글로벌동문메시지 _ 박호준 에어비앤비 SW엔지니어(미디어 99)
- 28 전공소개 _ 금융공학과
- 31 포토스케치 _ 아주대요양병원
- 32 새내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 36 교직원마이크 _ 장해경 기숙사 코디네이터
- 38 신입생을 위한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
- 40 뉴스
- 48 술선기부 _ 민경도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졸업생 54인





새내기 아주인에게 보내는 몇가지 조언

“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새 식구가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축하를 보냅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자유롭고 넓은 캠퍼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총장 박형주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어른으로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나날들을 위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스스로를 다지고, 인생관을 세우는 짝 찬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많이 도전하고, 부딪히고, 또 깨지고 넘어지는 경험을 하십시오. 저를 비롯한 아주의 교수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어느 분야로 진출하더라도 역시 기초체력이 있어야 잘 뛰고 오래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대학교육에서 기초교양과목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통과 의례로 치부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기초체력을 닦으라고 당부드립니다.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전문성을 터득하는 것은 전공과목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공과목에 집중하기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 자신의 미래 꿈을 구체화 하는 단계가 되면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초중고에서 경험해 보지 않았을 새로운 내용도 아주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파란학기제인데요. 학생이 스스로 설계하고 학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란학기를 통해 아주 학생들은 본인의 관심 분야에 직접 뛰어들어

탐구하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결과를 낸 학생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기술박람회 CES에 총장과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고, 지난 1월에 처음으로 4명의 학생이 다녀왔습니다.

그냥 강의실에서 강의 듣고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세상이 빨리 변화하는 시대가 되다보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출현속도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 많은 지식을 대학에서 다 배울 수는 없으니, 졸업 후에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필요할 때 학습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배워보지 못한 상황도 속출하고 이전에 다루어 보지 않은 문제들도 튀어나오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서도 학습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찾게 됐고, 인재의 기준을 정할 때 문제해결력을 중요한 잣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와 소학회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활동해 보세요. 선후배, 교수님과 활발히 교류하며 자신의 네트워크를 확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대의 자랑인 글로벌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 파견 프로그램

과 파란사다리, 인턴십 뿐 아니라 재학 중 최대 3번까지 파견 가능한 교환학생 제도와 아주대-미국 대학의 학위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수학위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대는 유학생 출신국가의 다양성에서 국내 3위에 들어가는 글로벌 대학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골고루 유학생과 교환학생이 아주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적극 활용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다채로운 언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는 48년동안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7번 했으며 총리를 3번, 대통령을 1번 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현대 이스라엘의 초석을 만든 분인데, 이분이 2016년 사망 며칠 전에 병실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 “평생 많은 것을 이루셨는데 크게 후회되는 것이 있으신지요?”

짧어서 꿈꾸었던 걸 평생의 노력으로 대부분 이룬 것 같았던 노정객은 말했습니다 - “내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 한가지는 더 큰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더 큰 꿈을 꾸었더라면 그는 더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꿈의 크기가 자신이 다다를 수 있는 최대라고도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꿈을 줄이지 마시고 더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관련없어 보이는 세상의 다양한 요소들은 점점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만 고립되어서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대는 생각하고 연결할 줄 아는 학생, ‘Connecting Minds’를 키우는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한 이곳 아주대에서 여러분의 젊음을 더욱 빛나는 시간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래가 원하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진 리더로 쭉쭉 커가십시오.

곧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하며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A



특집



연결의 시대, 어떻게 배울 것인가?

대학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기관은 그동안 인재를 훈련시키고, 가르쳐 사회에 배출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전문 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의 입지는 약해지고 그 존재 이유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아주대는 이에 그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와 문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논의와 고민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정립한 중장기 발전계획 '아주비전 4.0'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대학, '배움의 즐거움'이 흐르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학생들이 몰입을 통해 필요할 때 배우는 법을 익힐 수 있고, 스스로의 관심 영역을 찾아 도전하며 문제해결능력을 키워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세상의 여러 요소들이 점점 긴밀히 연결되어 가는 미래 연결의 시대를 주도할, 생각하고 연결하며 해결해나갈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다.

이번 호 <아주인사이트>는 대학 교육 혁신의 중심인 '강의'에 대해 조명해봤다.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깊이 공부하도록 돕는 아주대의 대표 강의와 교수자를 소개하고, 달라지고 있는 교육 환경, 학생들이 보는 명강의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



Ajou Teaching Award 수상자 9인

배움의 즐거움 가득한 아주 특별한 강의

마음만 먹으면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 대학의 역할은 무엇일까? 대학 교육의 효용에 대한 의구심이 커짐과 동시에 대학의 존재 이유 또한 명확해지고 있다. '학생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터전, 장(場)이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학생들 서로가 어울리면서, 또 학생과 교수가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자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강의'다. 긴밀하고도 따뜻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부의 재미와 의미를 찾아가는 강의, 앞으로의 삶을 위한 가치관과 신념을 정립해가는 강의가 대학의 핵심이요 존재이유다. 아주의 자랑인 9인의 명강사와 명강의를 소개한다.

정리 이슬 커뮤니케이션팀

깊고 넓은,
살아있는
수업



염동일 교수·물리학과

추상적이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물리학·광학 과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강의 시간에 다양한 실험 장치와 재료를 이용, 학생들이 실제 만지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함. 풍부한 예시를 제공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자료 및 스토리를 풍부하게 활용. 그밖에도 수업 내용과 관련된 최신 과학기술과 논문, 기사 등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호기심을 이끌어 냄.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게끔 자극함으로써 동기 부여. 평가 시에 답이 틀렸더라도 발상이 참신하고 전개 과정이 맞다면 점수를 많이 부여해,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

👍 “더 넓은 세상을 알게 한 유익한 강의”

빠른 피드백,
긴밀한 소통



박성진 교수·전자공학과

전공과목 <논리회로>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의. 매주 퀴즈를 보고 채점은 당일, 바로 학생들에게 피드백. 퀴즈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한 학기 내내 꾸준히 이어가면서 수강생들과 소통.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충실히 듣고, 평소에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 중간·기말시험 역시 종료 후 일주일 안에 결과를 학생들에게 피드백. 이후, 연구실에서 직접 학생들을 만나 결과 확인 후 질문·답변시간을 가짐.

👍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매주 퀴즈를 치렀기에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다”

특집



점검하고 살피며 진화하는 강의

안정섭 교수_소프트웨어학과

새로운 강의 교재와 자료를 발굴하고 학과 커리큘럼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주도. 학생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은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충실한 복습이 가능하도록 지도함. 학생들의 반응과 성취도 등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과제 제출율 등을 높이고자 노력함.

👍 “늘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며 강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교수님”



'스스로 잘 배우는 사람' 키우는 강의실

박철형 교수_글로벌경영학과

교수법과 강의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를 통해 만들어가는 혁신적 강의. 학생들은 미리 온라인 강의와 교재, 강의노트를 통해 공부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을 통해 심화학습. 수업 후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복습. 교수자로서 학생들의 토론을 검토하고 참여함으로써 적극 소통, 강의 내용 뿐 아니라 대 학생활동 및 진로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나눔.

👍 “스스로 찾아보고 고민하고 토론하며 깨달았다. 이게 바로 '공부'로구나!”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김정호 교수_경제학과

기초과목은 학생들이 원리를 체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응용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사회현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 동기부여를 위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청년실업, 최저임금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등)를 수업에서 다루고 관련 전문가 특강 마련. 빅데이터 분석과 경험 학습(Learning by Doing) 교수법 등의 새로운 방식을 시도, 효과적인 강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적용함.

👍 “더 넓은 세상을 알게 한 유익한 강의. 경제학의 이론과 실재를 함께 배운 매력적인 수업”

자세하고 친절하며 재미난 수업



이인환 교수_화학과

뛰어난 전달력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강의.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친근하고 친절함 태도로 대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신망을 얻음. 교재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실험 과정을 담은 영상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해를 도움. 뿐만 아니라 실제 대학원에서의 연구 수행과정과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깊은 연구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 팀 프로젝트는 일상생활 및 사회문제와 연결하여 수행하도록 함.

👍 “수강생 모두의 이름을 외우는 교수님은 처음입니다.”

딱 찬 지식에 재미까지 가득한 강의



박재연 교수_국어국문학과

학생 진로와 연계되고 실무에 바로 활용가능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신규 교과목을 개발하고 기존 교과목을 리뉴얼해 교육과정 개선에 기여함.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진로 계획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 자유탐구 과제와 소논문 작성, 맞춤형 모의 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폭넓은 배움을 유도함.

👍 “교수님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전공에 흥미를 느꼈다. 공부에의 열정이 샘솟았다.”



언제나 열려있는 교수 연구실

Rajib Paul 교수_소프트웨어학과

철저한 강의 준비와 소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 2018년 강의전담 외국인 교원으로 부임한 이후, 열정과 애정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해 옴. 맡고 있는 학부와 대학원의 각 강의 별로 정규 면담 시간에 더해 별도의 면담 시간을 배정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섬. 영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이메일, 별도 미팅 등을 통한 질의 응답도 긴밀히 진행.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문적 성취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 “수업 내용은 늘 명료하고, 수업 자료는 이해를 도와 준다. 열정으로 수업하고 최대한 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산업계 생생정보를 강의실로



정태영 교수_미디어학과

산학협력 전담 교수로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교과 과정에 반영, 학생들이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해당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미디어-인더스트리 링크, MIL) 구축. 이 시스템과 연계해 기업과 학생을 매칭해서 현장실습 프로그램 진행. 그밖에도 산업계 전문가들이 직접 각 직무와 필요한 역량에 대해 설명하는 인터뷰 동영상 수 십 편 제작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졸업생 멘토 110여명을 확보해 재학생들과의 멘토링, 사회진출 후기 확보 등 진행.

👍 “학생들이 본인 관심사에 맞는 기업체에서 제대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촘촘하게 지도해주신 교수님”

Ajou Teaching Award



아주대학교는 학생 교육과 지도에 헌신한 교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매년 '아주 교육 우수 교수(Teaching Award)'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교육 우수 교수는 소속 대학(원)장과 부처장의 추천을 받아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교육 발전에 기여도 ▲교육방법의 혁신성 ▲교육에 대한 열정이 평가 기준이다. 2019학년도 교육 우수 교수는 대상 1명, 우수상 9명이다. 우수상은 ▲우수 강의 ▲교수법 혁신 ▲조교수/신임교원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상패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 강의 한줄평은 학생들의 실제 강의평가 의견을 밝힙니다.

특집



“강의실 주연배우는 학생이어야 하죠”

— 교수·학생의 높은 상호작용과 테크놀로지 도입을 강조하는
‘Ajou Teaching Award’ 대상 수상 신중호 교수 인터뷰

CONNECTING MINDS

신중호

다산학부대학 교수·교수학습개발센터 센터장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학습분석과 교수개발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2015년부터 아주대에 재직 중이다. 아주대 교수학습개발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CTL) 센터장을 맡아 학생들의 성공적 학습과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2019년 아주대 교육 우수 교수 10명의 수상자 중 대상을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명패, 상금 30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완성된 강의”, “치밀한 설계”, “한편의 영화” 신중호 교수의 <창의적 사고 훈련> 수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다. 이 수업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거꾸로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중호 교수는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매 지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매해 정비한 강의계획서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며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고, 수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학생들을 수업의 주인공으로 인지시켜왔다. 더불어 색다른 강의실 배치로 학생들이 편안하게 토론에 참여하고 녹아들 수 있는 환경 조성까지 신경을 써왔다. 대학에서의 지식은 ‘배우며 경험했던 것들이’ 양분이 되는 것이며 교수가 얼마를 가르쳤는가 보다 학생이 얼마를 배웠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신중호 교수를 <아주인사이트>가 만났다.

정리 이슬 커뮤니케이션팀
사진 신예찬

<창의적 사고 훈련> 강의에 대한 소개

‘창의성’을 강조하는 시대이며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창의성이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개념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창의성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 수업은 창의성 향상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뤄집니다. ‘창의(創意)’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습과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은 70% 이상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스스로 시도 해보면서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그래야 다양한 자극을 받고 여러 관점을 수용하며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서 이지요.

강의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2015년부터 수업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대학에 개설된 창의성 관련 수업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학교의 교육목표와 학생 특성에 맞는 수업을 만들기 위하여 100여편 이상의 창의성 관련 책과 논문을 읽으면서 수정·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참고하면서 지금의 형태로 완성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재를 새로 마련하기도 했어요. 이 수업은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즉 거꾸로 수업 방식을 택합니다.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을 택한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한된 수업시간’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업내용의 반복적 학습을 통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플립드 러닝을 시도하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서의 실습과 토론을 위해서 홀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절대적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자연히 학습강도가 높아집니다. 이론은 미리 공부하고 오고, 강의실에서는 실습만 하겠다라는 이야기이니까

요. 학습 부담이 큰 만큼 학생들에게 초기부터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이 강의의 강의 계획서는 30페이지 분량입니다. 초반 2주 동안은 학생들과 친분을 쌓고 설득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으로 구성합니다. 무엇을, 왜, 어떤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되며 이 수업을 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며 ‘따라와 달라. 함께 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교수자 혼자서는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같이 하자’라는 대답을 강요하는 절차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약수를 나눴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있듯, 저는 수업계획서를 교수와 학생 간의 수업에 관한 ‘계약서’라고도 표현합니다(웃음).

효과적 수업을 위한 전략적 비책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다른 많은 교수님들의 경우처럼, 학생들과 만나게 참 즐겁습니다. 그에 더해 교육공학을 공부한 사람이기에, 과목·학생·교수자의 특성에 기반한 전략적 배치를 고려하게 되지요. 교수자가 어떤 장(場)을 만드는데 따라 학생들의 퍼포먼스는 무척 달라집니다. 교수는 내용 전문가이면서, 수업의 설계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느냐에 따라 학습효과는 천차만별이지요. 우리 대학에 새로 부임하는 신입 교수들을 컨설팅할 때 ‘줄이고, 버려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교수가 무엇을 얼마나 가르쳤는가 보다 학생들이 어떻게 얼마를 배웠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줄이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교수님들의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교수인 내가 직접 모두 다 해야 한다’라는 욕심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노하우

수업에서 학생과 교수자와의 관계는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적 교감과 공감대가 수업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나와있습니다. 교수와 학생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교수가 다가서야 합니다. 교수가 교단에만 머무르게 되면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이미

학생과의 심리적 거리감과 부담은 커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도입-전개-정리의 과정이 필요하죠. 저의 경우에는 수업 시작 5~10분 전쯤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미리 수업 내용이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의 음악을 틀어놓고 학생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석 부를 때 특정 학생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부르고, 팀별 토론 시간에 말을 걸며 '교수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각인을 주는 것이 중요한 사전 전략 중 하나죠. 학생들이 수업시간과 과제를 통해 적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했다가 피드백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학생들과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수라면, 이 수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얘기하며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데, 학생들은 수업에 대해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존중 받는 느낌이 들어서죠. 우리가 훗날 학창시절을 돌아보며 '주례로 모시고 싶은 선생님'을 떠올릴 때 달변이었던 선생님, 잘 가르쳤던 선생님도 기억나겠지만 어떠한 연결고리나 공감, 추억이 많은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의 나아갈 길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상이 나뉘게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 비율은 채 1%가 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
교수는
내용 전문가이자 수업 설계자
어떤 장(場) 만드는데 따라
학생 퍼포먼스 달라져
”

강의의 교육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많았고요. 한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교수들이 수업에 원격교육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체계적인 교수 설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러닝(online learning)과 달리 현재 코로나 사태 하에서 이루어진 원격수업은 상황적인 측면에서 '긴급 원격 수업(emergency remote teaching)'으로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각 강의에서 '티칭(teaching)'의 질이 확연히 드러나는, 투입된 노력과 정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의 장단점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격수업 적용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겠지만,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은 확실히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
줄이고 또 버리자
교수가 무엇을 얼마나 가르쳤나 보다
학생이 얼마나 배웠는지가 중요
”

저는 앞으로의 대학 교육에서 'High Touch, High Tech'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지식의 생산과 저장, 공유 방법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지식을 스스로 재창출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고, 수업 방법 변화의 핵심이 바로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을 위하여 적절하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수님들의 헌신과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지요.

지금, 여기 아주대학교는?

대학이 변한다고 해서 대학 교육의 양상이 바뀔 수는 없을 겁니다. 학생에 해당하는 인풋과 대학교육이라는 프로세스, 그리고 아웃풋이 존재하니깐요. 예를 들면 1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오면, 고교 때와 같은 방식으로 수학, 물리, 화학, 생물의 기초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용은 더 어렵고 성적에는 더 엄매이게 되기 때문에 당초 대학 생활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는 다른 일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저는 이런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대만의 '학습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공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수업이 강의 전반을 차지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대학 공부란 이런 것이구나", "이 수업 듣길 잘했다. 추천하고 싶다"와 같은 강의 평가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이야기 할 때 흔히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학교 환경과 교수가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교육 방법이 달라지면 교육 문화가 바뀌고, 그러면 학습 문화 역시 달라질 거예요. 우리 학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수법을 시도하는 교수님, 학과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특히 신입 교수들에게 보다 개방적인 문화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적용해 보려는 용기와 열정을 가진 교수들께는 구성원의 지지와 학교의 협력이 제일 필요합니다. **A**



<창의적 사고 훈련> 수업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신중호 교수가 마련한 강의실 공간. 팀 활동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해 구성했다. 휴대용, 노트북, 태블릿PC 등의 사용이 수업중 언제든 가능하며 각 팀마다 이를 TV와 연결해 공유하고 발표할 수 있다.

방문객

정현중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 신중호 교수는 교육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위의 시를 소개한다. 학생들을 시 속 화자의 이야기처럼 바라보고, 바람의 마음처럼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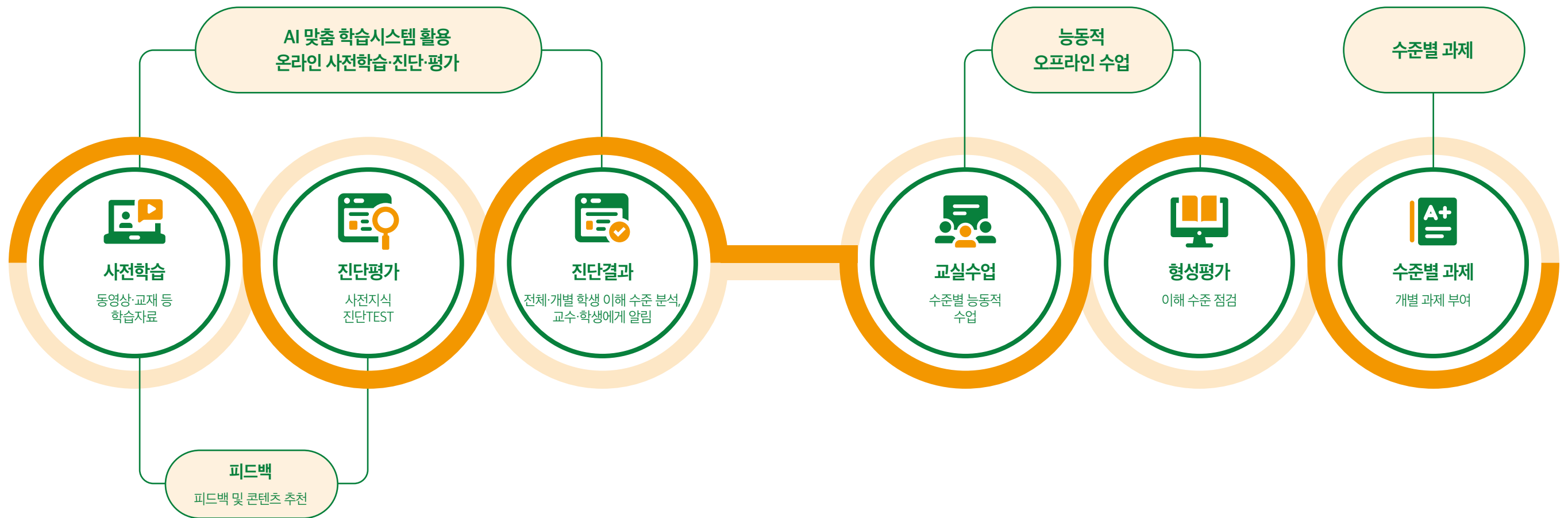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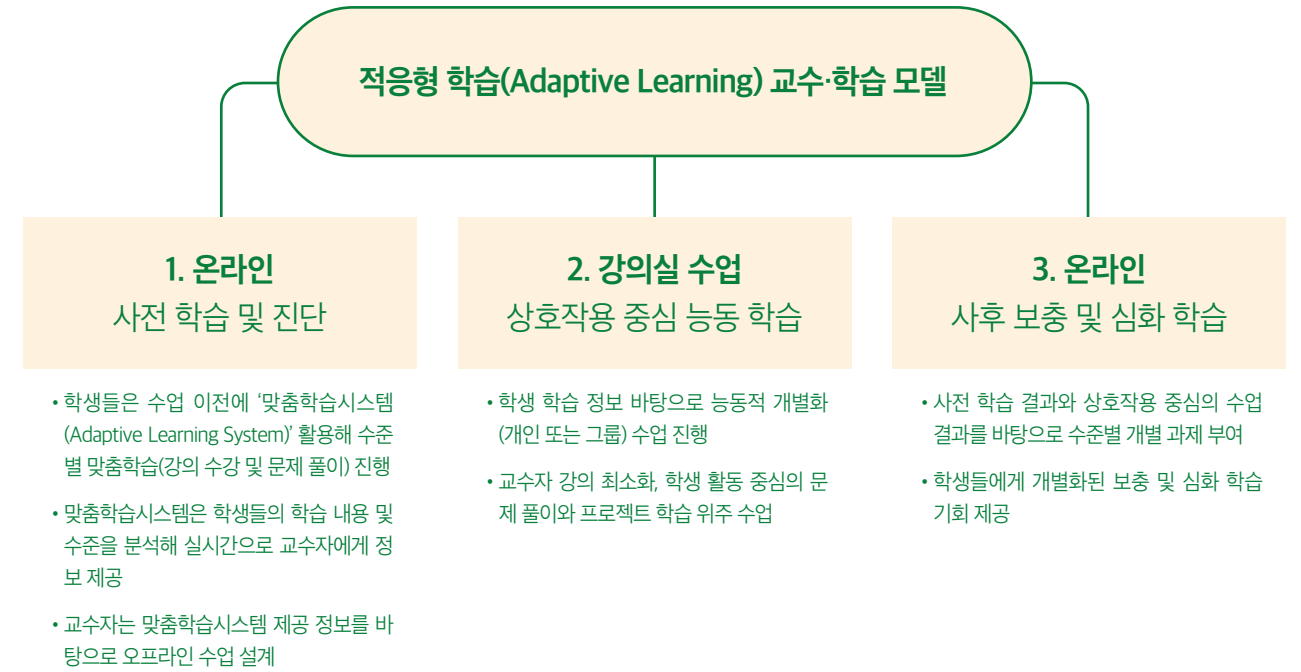


아주가 준비하는 미래형 강의

High-Tech가 가능케 할 High-Touch 강의실을 위해-

아주대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AI 기반 시스템을 이용해 학생들의 사전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교수자는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을 능동 학습(active learning)으로 구성, 학생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수준과 속도로 학습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적응형 학습 적용을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2020학년도 1학기 기초 교과목인 <화학1> 수업에서 첫 시도를 시작했다. 새로운 방식의 학습 모델을 도입한 데에는 다가오는 미래를 주도할 인재를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을 필요로 하기에, 전통적 방식의 강의실 수업을 탈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과 빅데이터 분석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교수·학습 지원에 활용하면,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❶

정리 이슬 커뮤니케이션팀



아주대학교는 적응형 학습 모델 적용을 위해 지난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다. 2020년 1학기부터 <화학1(황은경 다산학부대학 교수)> 수업에서 교수와 조교, 교수 설계자가 협업하여 이 모델을 적용·실행하고 있다. 앞으로 수학, 화학, 통계와 글쓰기 교과목 등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탐색 중이다.

특집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학생 에세이 -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내 안의 불을 켜다

'명강의'는 때로 학생의 인생을 바꾼다. 놓을 뻔 했던 전공 공부를 되잡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관심 없던 분야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한 명강의에는 교수자의 열정과 노하우가 켜켜이 그리고 듬뿍 담겨 있다. 학생이 보는 '명강의'는 무엇일까? 그 강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을까? <아주인사이트>가 학생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다. 아주대 교무처에서 진행한 <학생 에세이 공모전 -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수상작 가운데 일부를 발췌했다.

정리 김유진
일러스트 류희룡

“탄탄한 지식에 동기부여까지”

전자재료의 가공_고경현 교수

배지훈_신소재공학과 15학번

'전자재료의 가공'은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MOSFET) 가공과 관련해 웨이퍼 제조부터 패키징 전까지 전 공정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고경현 교수는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관련 기초지식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되고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소자의 경우 3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교수님께서 항상 그림을 활용하시고 웨이퍼, 산화, 리소그래피, 에칭 공정 등 연속적인 공정의 경우는 영상을 곁들여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복잡한 반도체 소자의 구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도 많은 편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매년 강의 내용에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고, 왜 이런 공정이 쓰이게 되었는지 이유까지 꼼꼼히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일본 수출규제가 반도체 시장의 이슈였는데 엔지니어적인 관점으로 접근, 수출규제 품목(포토리티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 초반에는 항상 지난 번 수업 내용을 언급하신 다음 심화과정을 시작하셨는데, 수업 때 놓쳤거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강의 말미에는 다음 수업에 다룰 내용을 가볍게 설명하시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복습하면서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음 수업에 참여하면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75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복습, 본 수업, 예습까지 아우르는 강의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소 어렵고 많은 학습량을 요구하는 강의였지만, 항상 질문을 환영하고 쉽게 설명해주려 노력하시는 교수님 덕분에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 쉬는 시간까지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이 반도체 엔지니어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해줄 수업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수강한 반도체 관련 강의였지만, 다른 학생들에 비해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을 통해 탄탄한 지식과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의 즐거움을 깨닫다”

전자기학, 전자장론_이해영 교수

이희승_전자공학과 16학번

솔직히 처음에는 기출문제만 살펴보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수업이라는 선배들의 추천에 강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2학년에 복학하면서 편하게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해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3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이해와 참여, 정직이었습니다. 시험을 위해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질문을 하라는 것, 부정 출석을 하지 말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교수님은 전자기학이 무엇인지, 우리 생활과 얼마나 가까운 학문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어느새 강의에 빠져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들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날 무언에 홀린 듯 반장을 맡겠다고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저는 강의를 듣는 동안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찾게 해준 문학 수업”

한국의 현대문학_조명숙 교수

박성아_미디어학과 17학번

<한국의 현대문학> 수업은 처음으로 문학을 예술로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강의입니다. 우리는 수능 문학을 공부하며 본디 정답이 없는 문학에서 정답을 찾는 훈련을 했고,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갖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업은 다양한 시를 읽으며 자신의 감상을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토론식 수업의 특성상 작품의 해석을 학생 본인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발표를 하다 보니 학생들마다 정말 제각기 감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의 감상은 웃음을 자아냈고, 보고서를 읽는 것 같은 교과서적인 답변도 나왔고, 나와는 해석이 정반대여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소설이론에 대한 강의와 함께 4인 1조로 팀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단편 소설 한 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재해석한 시놉시스와 함께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표팀 이외의 학생들은 작품을 미리 읽어 와야 했고 발표시간에는 발표 평가지와 더불어 소설의 감상문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발표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발표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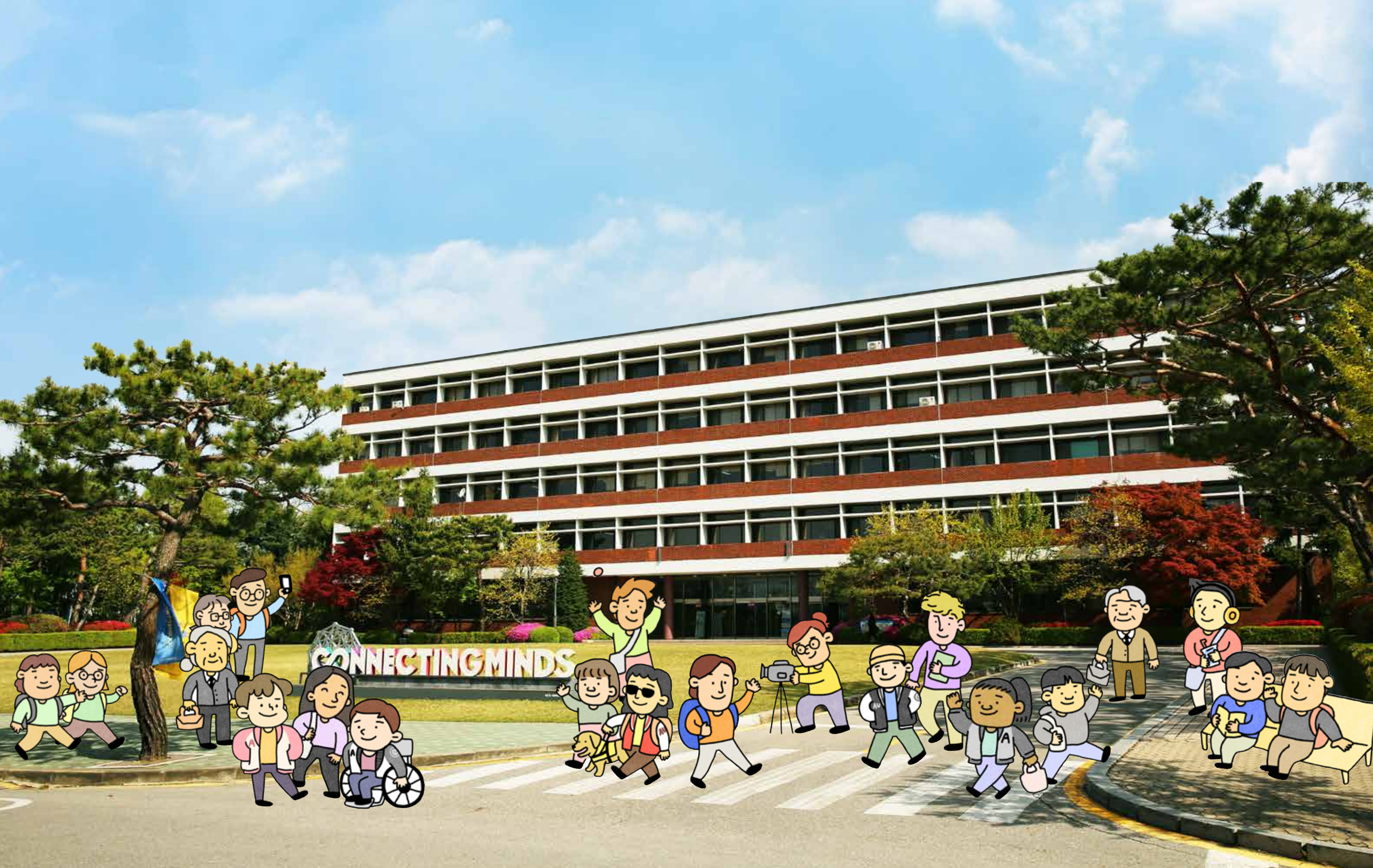


수업 방법도 다른 수업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개념을 적용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먼저 생각해보고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였고, 학생들의 질문을 이끌어냄으로써 앞으로 한 단계씩 나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놓친 점이 있으면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평가 방법도 조금 달랐습니다. 학기에 총 6번, 2주에 한번씩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중간·기말고사 기간의 학습부담을 덜고 꾸준히 공부하라며 격주로 6번의 시험 전에 각각 한번씩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첫 시험에서는 점수가 한 자리 수였지만 나중에는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수업을 계기로 다른 강의를 들을 때에도 완전한 이해를 목표로 공부하는 자세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한 생각을 내놓고 작품을 비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평적 관점·방법을 기르고 문학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폭을 넓힘'이라는 수업 목표에 부합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초반부에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관점을 여러 사람과 나누는 연습을 했다면, 팀 발표에서는 그 경험을 거름 삼아 적극적인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자체를 바라보니 읽을 때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시의 매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대문학>을 한 시간만 제대로 들으면 문학을 교과목이 아닌 예술로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사랑♥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아주사랑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에는 총 84개의 작품이 응모했다. 심사 결과 ▲영상 콘텐츠 ▲이미지·일러스트 ▲프로모션 부문에서 수상자가 나왔고 ▲PPT 템플릿 부문에서는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수상자는 총 12명으로 대상에게는 부상으로 애플 아이패드(128GB), 최우수상에는 애플 에어팟,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문화상품권 10만원권, 문화상품권 5만원권이 주어졌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상	박소정(미디어16)_영상	우수상	오예현(소프트웨어19)_이미지/일러스트 김서이(미디어18)_이미지/일러스트 박새힘(미디어18)_영상	장려상	김승태(건축19)_이미지/일러스트 정한나(미디어15)_이미지/일러스트 김나예(미디어15)_영상 권순하(영어영문17)_신선아(미디어18)_프로모션 김명지(미디어18)_프로모션
최우수상	주다빈(문화콘텐츠19)_이미지/일러스트 양성은(미디어13)_이미지/일러스트				

* <아주사랑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이미지/일러스트 부문에 응모,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다빈(문화콘텐츠19) 학생의 작품을 활용해 재구성한 작품임을 밝힙니다.



4년 장학생 입학... 궁금한 게 많아 날려버렸죠!



ITCEN 아이티센그룹
ITCEN GROUP

강진모

아이티센그룹 회장 / 물리 88

1988년 아주대 물리학과에 입학했다. 궁금하고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았던 대학 시절, 그룹 사운드 활동과 각종 아르바이트로 다채로운 경험을 쌓았다.

1994년 벤처 1세대 기업 다우기술에 입사했다. 이후 창업에 나섰으나 IMF 사태 여파로 중단하고, 열림기술이라는 회사에 다시 동지를 튼다. 신사업을 맡아 승승장구, 독립의 기틀을 마련해

2005년 아이티센을 설립했다. IT서비스 기업 아이티센은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 이후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 올해 매출 1조5000억원이 넘는 그룹으로 성장했다.

궁금한 게 참 많았던 학생 - 강진모 회장은 스스로의 대학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전공 공부보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던 시절, 그룹 사운드 베이스로 활동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고 아주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섭렵했다. 과외 지도, 신발공장, 유리창 닦기, 공사장 등을 거치며 다채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대학 안팎에서 부딪히며 배웠다.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사업가로서의 밑거름이 된 시간이었다.

진행 이슬 커뮤니케이션팀

정리 김유진

사진 신예찬

“밴드, 과외교사, 신발공장, 유리닦기...
‘학사경고’와
‘관계의 경험’을 맛바꾸다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큰 적
앞아서 고민만은 말자
한 발씩 떼어보자

“아주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장학금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웃음). 공부보다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1학년 때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 과 동기들과 열심히 활동했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 동기들이 학사경고를 받고 군대를 가서 반도 남지 않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또 사업 자금을 모아보자 싶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곳에서 일하며 이런 저런 경험을 했죠. 그 시절 좋은 사람들을 만나 여러 네트워크를 이어왔던 경험이 사회에 나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가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2005년 아이티센을 설립해 2020년 매출 1조5000억원이 넘는 그룹으로 키우기까지, 강진모 회장은 업무를 ‘알’이 아닌 ‘놀이’처럼 행복하게 해왔다고 고백한다. 고객, 직원을 비롯한 사람들과 만나 어울

려 이야기 나누고 교류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다는 것. 그에게는 아주가 그 시작이고 터전이었다. 단순히 물리학도로서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 교류하며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게 좋은지 익히고 배우는 대학시절을 보낸 것. 대학 안에서 만난 선배들은 벤처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되어 주고 있다. 1년에 한번씩 학교에서 모임을 가지고, 함께 해외 여행도 떠날 정도로 끈끈한 친분이다.

강 회장은 물리학과 졸업반이던 1994년 벤처 1세대 기업인 다우기술에 입사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회사의 신사업인 CD롬 타이틀 업무 전반이었다. 단 한 명뿐였던 선배가 퇴사하면서, 신입사원이었던 그가 임원진을 도와 업무를 이끌어가야 했다. 기획과 영업, 마케팅까지 신입으로서의 힘겨울 수 있는 업무를 공부하고 준비하며 해 나갔

던 1~2년의 시간은 그에게 엄청난 도전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혜택’이었다.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임원·사장과 직접 대면해 업무를 추진하며 크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덕분이다.

자신감이 붙은 그는 1996년, 동료들과 함께 사업체를 꾸려 독립한다.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회사였지만, IMF사태의 여파로 1년 여 만에 중단. 그는 다시 회사원으로 돌아온다. 열림기술이라는 셋톱박스 전문 회사였다. 이 회사에서도 신사업을 맡아 3년 만에 300억원의 매출을 하는 부서로 크게 성장시킨 그는 이 사업 부문을 인수한 다른 회사로 옮겼다가, 독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직원 40여 명이 그와 한배를 뒀다. 그렇게 아이티센이 탄생했다.

“오너가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잘못된 판단을 하던 기업에 위기가 옵니다. 기업에 있어 균형과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처음 회사를 세울 때부터 역할을 나누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럿 있어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아이티센은 설립 초기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는 자산 100억원 이상의 기업에게만 필수임에도 말이지요. 투명성이 없는 기업은 영속하기 어렵고,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의사결정을 내리고 추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이티센그룹은 인수합병을 통해 IT 서비스 및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네트워크와 스토리지에서부터 각각의 전문 분야가



확실한 금융, 공공,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 최근에는 한국금거래소를 인수해 이 분야의 디지털 변환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강진도 회장은 아주의 후배를 비롯한 젊은이들에게 ‘한 발 한 발의 실행’을 강조한다.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노력해 보자는 것.

“얕아서 고민만 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노력해 가다 보면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순수한 기술 연구에만 매달리지 않는 한 모든 실용적인 기술은 문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제품 하나가 나오려면 마케팅, 디자인 등 다른 영역과의 연결이 필요하죠. 요즘 학생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 들이는데, 그러한 태도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IT 서비스 대표주자, 올해 매출 1조5000억 기대

아이티센그룹은 모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아이티센을 중심으로 자회사인 코스피 상장사 콕텍시스템, 코넥스 상장사 굿넷, 시큐센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장사로는 한국금거래소, 씨플랫폼,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 마이펫씨엔제이가 있으며 최근 인수계약을 체결한 코스닥 상장사 쌍용정보통신이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아이티센과 쌍용정보통신은 IT서비스 응용 구축 및 개발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콕텍시스템과 씨플랫폼은 Cloud&Data 솔루션 및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굿넷은 기업경영 솔루션 및 건설 ERP 개발, 시큐센은 핀테크 보안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한국금거래소는 실물 금거래를 주력으로 하며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은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금거래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마이펫씨엔제이는 반려동물전문 소셜커머스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이티센그룹이 오는 2022년 입주할 과천 신사옥 조감도. 신사옥이 준공되면 계열사들의 시너지가 극대화, 종합 IT서비스그룹으로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학교의 또 다른 주인공은 학부모 - 학생과 학교 발전의 동반자로서 부모님과 학생의 다양한 말씀을 귀담아 들겠습니다.



나의 아들 **용훈**에게

“넓은 바다로 나아갈 큰 배가 되어주기를”

김정화 / 정용훈 학생 어머니

용훈을 비롯한 두 아들을 키우며, 24년간 검찰청 사무운영직으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24년간 검찰청에서 사무운영직으로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훈이는 저희 부부에게 듬직하고 고마운 아들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엄마 아빠의 사정을 헤아려 항상 큰 도움을 줬고, 고3때 힘든 일도 있었지만 착한 아들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며 열정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 용훈이가 아주대에 입학하게 되어 우리 부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20대를 아주대와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놀고 연구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아주대 캠퍼스에서 후회 없는 20대를 보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쌓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용훈이는 넓은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큰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큰 배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아주대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억을 동력 삼아 아주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얻는다면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도, 앞으로도 아들의 결정을 믿고 지지하려 합니다.

우리 용훈이 파이팅! 아주대 파이팅!



나의 어머니께

“자유롭되 꼭 찬 대학생할 만들어 볼래요”

정용훈 / 응용화학생명공학과 1학년

김해 대청고를 졸업하고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중학생 시기를 목표 없이 보내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막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삼촌의 추천으로 아주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대를 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제 전공에 대한 흥미도 컸지만,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주대는 복수전공이나 전공심화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공부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선택한 학과의 융합적인 특징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대학생활을 즐기며 성장할 수 있는 대학생활을 꿈꿀 것입니다. 저 역시 수험생활도 끝났으니 자유로움을 즐기면서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일들을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배우고 싶었던 과목의 강의를 듣고, 경험하고 싶었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는 대학생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기대했던 학교생활을 당장 맛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서 이 사태가 진정되어 학교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아주대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공부하며, 성장하는 아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

해외 동문 메시지

인생은 마라톤, 가슴 뛰는 일을 찾자

2000년대 초반, 한국 벤처기업에서 웹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한 박호준 동문은 여러 게임회사와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쌓았다. 미국으로 건너가 학업을 마친 뒤, 실리콘밸리에 입성했고 혁신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준비된 인재들에게 좋은 기회가 쏟아졌다. 그저 개발자로서의 일이 좋아, 그 짜릿함에 매료되어 한 우물만을 파온 박 동문에게도 마찬가지로였다. 스타트업 개발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그는 링크드인(LinkedIn)에 합류했고, 2017년부터는 에어비앤비(airbnb) R&D부서에서 증강현실기술을 에어비앤비 제품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리 **이슬** 커뮤니케이션팀

개발자의 길, 이렇게 시작했다

아주대 미디어학과 2학년에 다니던 중 벤처업계에 몸담게 되면서 웹 개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여러 게임회사를 거쳐 기업용 오픈소스 CRM을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에서 프론트엔드 플랫폼 개발 업무를 했다. 코딩이 좋고, 배운 기술을 실무에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임금이나 회사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선배 개발자들과 함께 일하던 어느 날, 미국에 있던 가족들의 요청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 오게 됐다. 가족들의 일을 도우며 웹 개발을 해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한국에서 중단했던 학업을 이어가 보자는 생각으로 뉴욕주립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위를 마쳤다. 나이 서른을 넘긴 시점이었다.

졸업한 해는 2011년, 얼어붙은 경기 탓에 취업이 쉽지 않았다. 100곳 넘는 회사에 지원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에도 지원했지만 다 떨어졌다. 수 차례 도전 끝에 작은 게임회사에 합격, 실리콘밸리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이 무렵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이 급성장하

며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며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해오던 프론트엔드 기술도 빛을 보기 시작했다. 관련 경력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것이다. 남들보다 먼저 이 기술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배우고 실무에 적용하려 했던 노력들이 내 성장에 기반이 됐다.

내가 경험한 실리콘밸리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인텔, 넷플릭스 등이 모여있는 곳이라 '천재들이 모여있는 동네'로 생각하거나 내 손으로 세상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꿈에 부풀지만 막상 해야 하는 일은 일반 회사의 업무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천재과의 사람들이 모여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가는 부서도 있긴 하지만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혁신기업의 대표 주자 구글의 직원이라도 그가 속한 팀이 일상적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리 새롭거나 도전적인 분위기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 서른 넘겨 마친 학위
얼어붙은 경기, 100번 넘게 낙방했다
시장이 커지며 기회가 왔다 ”

“ 실리콘밸리, 엔지니어에게는 '최고'
성과 - 보상 확실하고
최신 트렌드가 집결하는 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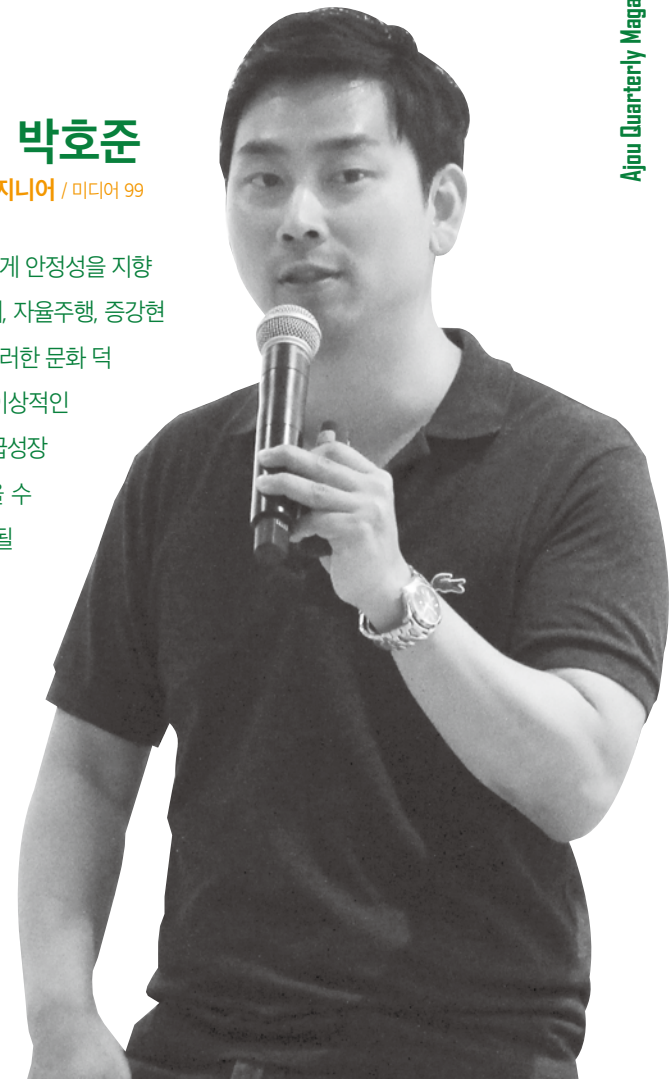
박호준

에어비앤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미디어 99

실리콘밸리에서는 팀 간, 회사 간 이동이 많고 자유롭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정성을 지향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부서와 회사에, 도전과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공유경제, 자율주행, 증강현실, 인공지능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부서나 회사를 찾아가게 된다. 이러한 문화 덕에, 실리콘밸리가 '혁신적인 생각으로 무장한 자기주도형 인재들로 가득한 이상적인 동네'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바로 '자본'과 직결되어 있다. 투자가 급성장하는 기업에 몰리고, 회사의 성장으로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일확천금의 기회를 직접 목격한 인재들이 차세대 우버, 에어비앤비가 될 기업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언어장벽과 살인적 물가다. 테크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해도 직급이 위로 올라갈수록 언어장벽을 실감하게 된다. 더 많은 시간을 문서 작업과 의사소통에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리콘밸리는 엔지니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 곳임에 틀림없다. 몇몇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





을 1학기에도 '파란' 향해 이어져-

내가 만드는 나만의 대학

스스로 제안한 도전 과제를 수행하고 학점까지 받는 프로젝트, 아주대학교의 '파란학기제'가 2020년 1학기에도 이어진다. 이번 학기에는 14개 팀 62명의 학생이 참여해 파란(破卵)에 도전한다.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아주대가 시작한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 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해 실천하고 학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알(자신의 틀)을 깬다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을 담았다. 참가자들은 인문, 문화·예술, 봉사, 국제화, 산학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본인들이 설계하거나 학교, 교수가 제안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는 앞으로 '파란학기-extreme'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더욱 확대·장려할 계획이다. 2020년 1학기 도전에 나선 참가자들을 소개한다. ▲

- **EleverD** 복용순응도 향상을 위한 소책자 제작·전자복약모니터링 기기 및 앱 개발(김문주 박서연 이유리 김혜윤 남창현 김수아 이현민)
- **AMA** 몰입형 가상현실 기반 사이버 갤러리 구축(김동우 류석현 이서준 임형찬)
- **노력이 가상** 구글 글라스 및 HMD를 이용한 체험형 증강현실 환경 구축·공장 설비 구성 VR(김지훈 권구민 심승보 지영현 한창희)
- **ARmy** 구글 글라스 및 HMD를 이용한 체험형 증강현실 환경 구축·국방 훈련 시뮬레이션(권경민 서미루 서빈 이인표)
- **파란볼** 차세대 에너지원 '수소' 상용화를 향한 도약(문예지 손서연 성하영)
- **초지일관** 대학교 학생 선거 투표율에 따른 당선율 영향 분석(박채현)
- **킹스맨** 설비 부품 수면 관리를 통한 설비 예지 보전(양희찬 유근호 정민영 홍기룡)
- **빌트인** IT 교내 기숙사 에너지 최적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방안 제안(김태우 금창운 이해인)
- **피어나다** 디지털 시민 만들기 프로젝트(변현경 홍세아 이승현 김예경 정혜림)
- **함께살다** 15가지의 장애 유형별 인터뷰 및 영상 제작 및 도서 제작(한혜경 박은지 조서연)
- **별하필름** 파란학기를 주제로 한 웹드라마 제작(이상훈 허유강 문성은 김민서 김하연 박세미 현진형)
- **세주씨** 스튜디오 뉴미디어상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패션필름 제작(유명진 강다경 전예진 조현아 김윤하 서준영)
- **HEROZ** 관공서와 지역 대학생이 연계하는 소방 안전 교육 콘텐츠 제작(공병국 강지윤 박주영 이유지 윤아림)
- **Re:act** 구글 글라스 및 HMD를 이용한 체험형 증강현실 환경 구축(김소현 김지현 김현우 유혜선 윤수희)



“

외주 개발로 용돈 벌어 탕수육 사준
기숙사 옆방 선배가
내 인생의 멘토

”

우는 없고,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어서다. 무료 식사 제공, 무제한 휴가 허용, 거액의 주식과 현금 보너스, 자율 근무 제도 등이 그 예다. 무엇보다 최신 트렌드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고 전세계 소비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기업들이 신기술 도입을 장려하며 그 성과에 대한 보상에도 적극적이라는 점 등이 실리콘밸리의 매력이다.

아주대가 나에게 남긴 것

재학 시절 기숙사 옆방에 있던 선배가 기억난다. 가끔 기업 외주 개발을 맡아 용돈을 벌곤 했는데, 선배는 그런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날이면 꼭 탕수육 같은 배달음식을 푸짐하게 사줬다.

당시 나는 과외지도나 식당 아르바이트밖에 몰랐던지라, 그 모습이 참 멋져 보였다. 그 선배에 대한 동경으로 2학년 때 웹 프로그래밍 과목을 수강하면서 나도 이걸로 용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 개발자의 길에 들어서게 한 가장 큰 계기가 아닌가 싶다. 멘토는 저 멀리 큰 기업인, 성공시대의 주인공만이 아니다. 옆에서 쉽게 찾고 접할 수 있는 멘토, 그 인생의 길잡이를 나는 아주대에서 찾았다.

글로벌 무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개발자를 꿈꾸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코딩을 할 때 얼마나 만족스러운가를 생각해봤으면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용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 일을 통해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주변의 회사에서부터 한 단계씩 시작하기를 권한다.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우선 본인 주변의 탄탄한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실력을 인정받은 좋은 개발자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한국에 이미 많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배민 등의 회사에서 인정

“

내 페이스를 먼저 알아
멈추지 않는다면
만화·역전 기회는 찾아온다

”

받는 개발자라면 해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충분하다. 실질적 어려움인 비자문제는, 실력이 받쳐주는 인재라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인 증강현실 프로젝트를 완성해, 연내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업무 이외에는 올해 출간한 <두잇 리액트 프로그램 정석>의 유튜브 강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아주대 윤대균 교수님의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틈틈이 아주대 후배들에게 경험담을 공유할 계획이다.

멋다한 이야기

인생은 마라톤이다. 당장의 단거리 질주에서 뒤쳐진다는 조바심에 본인 페이스를 벗어나 무리하게 되면 결국 완주는 어렵게 된다. 본인의 페이스를 알고, 유지하며 계획한 대로 나아가면 뒤쳐진 거리를 만회하고 앞질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지금 대학에서 1~2년의 고민과 방향은 시간의 낭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다. 대학 졸업 후 40년 넘게 뛰어야 할 인생의 마라톤을 염두에 두고 꼭 하고 싶은 일, 작은 결과에도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본인만의 목표를 찾기 바란다. ▲



에어비앤비(airbnb) 2008년 창업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 호스트가 방이나 집을 임대한다. 현재 전세계 220개국에서 700만개의 숙소를 확보하고 있다. 이용객은 4억명에 달한다. 본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3년 1월 정식 서비스로 시작했다.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주자로, 지난 2015년에는 '최고의 직장' 1위(직장평가사이트 글래스도어 선정)에 오르기도 했다.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금융공학과

무한한 상상력으로 금융상품을 디자인하다

CONNECTING MINDS



원동철

금융공학과 교수

금융상품은 서로 다른 형태의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수단입니다. 특히, 금융거래는 현재의 가치와 미래에 발행할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의 가격은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뿐 만 아니라 이자율, 환율, 경제정책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손실의 위험이 수반됩니다.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예가 채권과 주식입니다. 금융기관은 미래에 소득을 창출하여 빚을 상환할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기업에게 그들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즉 채권은 개인, 기업 또는 국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채권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미래 이자율의 변화는 채권의 수익율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의 보유자는 해당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는 해당 주식이 미래에 지급할 배당금들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배당금은 지급시점이나 규모면에서 매우 불확실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현재의 주가가 불확실한 배당금의 가치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가의 불확실성은 주식투자 손실의 원인이 됩니다. 채권과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은 옵션을 이용하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보유자는 해당 주식을 매개로 만들어진 풋옵션을 구입하여 주식가격의 하락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풋옵션은 미래의 일정 시점(만기)에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보유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매입하면 만기시 최소한 행사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풋옵션의 원리는 마치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보험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풋옵션의 가격은 이러한 보험기능에 대한 시장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 폭이 크면 풋옵션의 보험기능도 커지기 때문에 풋옵션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화재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산업에서 화재보험료가 비싼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채권투자자도 이자율 또는 채권가격을 매개로 하는 풋옵션을 매입해서 투자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과 주식에 대한 투자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유익한 풋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환율, 원자재의 변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리스크는 선도계약, 스왑 등과 같은 파생상품을 통해 관리할

“

금융공학은 첨단과학,
금융기관·기업의 투자전략과
위험 관리에 활용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여러 위험을 금융상품으로 디자인

환율·이자율·지진·기후변화까지 무한

”

수 있습니다. 선도계약, 스왑,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의 가격결정원리는 금융공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금융공학은 파생상품시장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금융공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금융파생상품의 가격결정원리를 연구하는데 사용되는 복잡한 수식을 떠올리면서 수학, 통계학 또는 물리학의 수리적 이론들을 재무학에 응용하여 발전된 학문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금융공학의 한 단면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금융공학은 경제학, 경영학, 컴퓨팅, 수학, 통계학 등에서 발전된 이론들 융합하여 금융상품을 디자인하고, 가격결정원리를 연구하고, 거래

전략 및 헤지전략을 수립하는데 응용하는 실증적 학문입니다. 최근에는 금융산업에도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의 금융기법이 빠르게 도입되어 기존의 기술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금융공학의 융복합적 성격에 관해 좀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금융공학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디자인하는 과정은 패션 디자인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다가올 계절에 유행할 패션을 미리 감지하여 패션을 디자인하듯이 금융공학자는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새로운 금융리스크를 발굴하고 재단하여 금융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디자인합니다. 환율, 이자율부터 지진, 허리케인, 기후변화 등에 이르기까지 경제, 사회, 자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금융상품으로 디자인하는 학문이 바로 금융공학입니다. 금융상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단계는 금융공학에서 고부가가치 단계에 속합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에 한계가 없듯이 금융공학의 영역도 무한합니다.

금융공학은 첨단과학입니다. 금융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는 첨단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학적, 통계학적 모델을 통해 과학적으로 평가됩니다. 금융공학에서 개발된 가격결정모델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포트폴리오 투자전략을 수립하거나 이자율, 환율, 인플레이션 등의 불확실한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는데 적용됩니다. 또한 옵션의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면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시장가격 변동성을 정량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처리하기 힘든 방대한 양의 빅 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머신러닝 및 AI 기반의 첨단 컴퓨팅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금융공학은 행동심리학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쓸림현상과 정보의 전염현상에서 나타나는 투자의 비합리성이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보다는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행태와 정보를 따라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쓸림과 전염현상은 금융위험을 확대 재생산하여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가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공학의 주요 연구대상입니다. 금융공학의 행동심리적 접근방법은 쓸림현상과 같은 금융시장의 비이성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금융공학 전문인력은 경제 및 금융현상에 관한 이해, 수학적 분석 능력 및 데이터 분석 능력이 뛰

어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모델링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투자은행, 일반은행, 헷지펀드, 보험회사, 증권사, 컨설팅 회사, 금융관련 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는 짧지만 매우 강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아주대 금융공학과는 2009년도 정부에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한 'World Class University(WCU)'에 선정되어 2010년도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융공학 학부로 설립되었습니다. WCU 사업의 금융공학·수학 분야에서 소위 스카이 대학을 포함하여 많은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아주대가 단독으로 선

“

금융공학 인재는

경제·금융 이해와 수학적 분석력 갖춰야

아주 졸업생들의 눈부신 활약

도전적 인재의 훌륭한 배움터 될 것

”

정되었습니다. 금융공학과 교수진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WCU 사업을 통해 금융공학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석학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금융공학과는 국내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융 리더가 갖춰야 할 금융공학 실력, 컴퓨팅 능력 및 경제경영의 소양을 닦는데 필요한 첨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고방식, 경제학 원론, 금융공학 입문 과목 등은 경제현상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경제학의 기본 지식을 가르칩니다. 재무관리, 투자론의 기초 금융과정을 거친 후에는 선물옵션, 고정소득증권론 과목에서 금융파생상품의 가격결정관리와 거래전략을 배웁니다. 금융선형대수, 금융미분방정식, 해석학 등의 탄탄한 수학적 분석능력을 다진 후에 수치해석과 계산금융 과목을 통해 금융파생상품의 가격결정이론과 포트폴리오 투자전략을 산업현장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컴퓨팅 능력을 배우고 실습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랩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대 금융공학과는 빅데이터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과목을 타대학보다 먼저 개설하여 4차 산업혁명의 변화기에 접어든 금융산업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밖에 안되는 짧은 역사 동안 배출된 금융공학과 졸업생들은 국내외의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평가사, 자산운용사 등 우수한 국내의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Bloomberg, 해밀톤 레인, 중국농업은행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질 뿐 만 아니라 취업률도 매우 높습니다. 졸업생들은 또한 본교 및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국내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뿐 만 아니라 콜럼비아대학교, 보스턴대학교 등 미국의 명문대 대학원에도 진학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기술혁신에 적응하지 못하는 골리앗은 빠르게 진보하는 다윗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는 기술혁신으로 인한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훌륭한 배움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④

빠른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이들을 위한
원동철 교수의 추천서



1. 천재들의 실패 (When genius failed)

이 책은 미국의 전설적인 헤지펀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LTCM)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입니다. LTCM은 월가에서 채권 차익거래로 유명한 존 메리웨더(John Meriwether)에 의해 199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헤지펀드는 1998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MIT의 마이런 솔즈와 로버트 머튼 교수를 비롯해 월가 최고의 트레이더, 그리고 MIT·시카고대학 등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수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마이런 솔즈와 로버트 머튼 교수는 금융공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블랙-숄즈-머튼 옵션

가격결정이론을 정립한 학자들입니다. 이 헤지펀드는 만기가 다른 채권들의 금리 차이를 관찰하여 가격이 과대평가된 채권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채권을 매입하는 차익거래전략을 구사해서 초기에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LTCM은 1996년까지 연 28~59%의 고수익을 거두었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에도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채를 다양으로 보유하고 있던 LTCM은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며 위기에 직면하고 결국 그 해 9월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모라토리엄은 블랙스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리웨더의 투자전략은 블랙스완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노벨상에 빛나는 금융경제이론, 투자기법,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과정, 그리고 LTCM의 파산 당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대응 등에 관해 매우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고 소설처럼 흥미로워 금융공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읽을거리가 될 것입니다.



2. 블랙스완 (The Black Swan)

호주에서 블랙스완(검은 백조)이 발견되기 전까지 유럽에서는 블랙스완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경제현상에서 블랙스완은 발생하기 전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을 지칭합니다. 블랙스완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고 이전에는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2001년 9-11 테러,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구글의 놀라운 성공 같은 사건이 블랙스완의 예에 해당합니다.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는 이 책의 저자인 Nassim

Nicholas Taleb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검은 백조는 종교의 부상에서부터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블랙스완이 발생하기 전에 왜 사람들은 그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할까요? 이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이외의 모르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기회를 실제로 평가하기 어려운 뿐 만 아니라 상황을 단순화하고 익숙한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데 익숙합니다. 또한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믿어지는 현상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개방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책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무시되거나 외면된 사건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 나가는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시 일상의 삶으로... 아주대학교요양병원 개원

‘재활환자 위한 맞춤형 치료’ 목표

아주대학교요양병원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Regain Your Life)’를 슬로건으로 지난 2월10일 개원했다. 재활환자를 위한 맞춤형 전문 재활 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다.

아주대학교요양병원(원장 소의영)은 지하5층, 지상8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 3만4244㎡이다. 지상3층부터 7층까지는 입원실, 1~2층은 재활치료공간이다. ‘재활’을 중심에 두고 구성된 이 공간에서 환자들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전문적인 맞춤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중치료실과 최첨단 로봇으로 보행훈련을 하는 로봇보행치료실, 움직임에 이상이 있는 환자를 분석해 치료하는 동작분석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일상 복귀를 위해 실제 집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한 일상생활 동작치료실에서는 화장실 이용과 보조 도구 사용 등을 돕는다.

더불어 암 재활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 통합 케어를 시행, 환자들은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관리를 받으면서 치유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의영 원장은 “아주대병원,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과 함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요양병원 전체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가겠다”며 “연구 데이터 축적을 통해 요양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국가에서 요양병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④



Regain Your Life



사진 tqstudio

2020년 1학기 임용 신입 교원 인터뷰

새내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2020학년도 봄학기를 맞아 28명의 교수가 아주 가족으로 새로이 합류했다. 학생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더 좋은 연구를 하겠다는 포부와 열정이 담긴 새내기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곽원진 화학과

전기화학 분야의 연구자로서, 상용 리튬-이온 전지의 에너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리튬-산소 전지와 같은 차세대 이차전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아주대에서 전기화학 및 전지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학생 여러분의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길 희망합니다. 전지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박민재 e비즈니스학과

제 주요 연구 주제는 MIS 분야와 비즈니스 분석(Business Analytics) 분야입니다. 저는 박사 졸업 후 국내외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쳤고 2017년부터는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알토대학교의 MBA 과정 아카데미 디렉터로 활동하며 국내외 기업 종사자들의 MBA 교육과 과정 운영을 맡았습니다. 알토대와 글로벌 학위 과정 운영을 하면서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대해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 북유럽의 스타트업 문화와 방식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모교로 돌아오게 되어, 많은 책임감과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연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대와 제가 속한 학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가기 어려운 교수가 아니라, 언제든지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는 그런 교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때로 돌아가 자신을 돌이켜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불안감과 고민의 시간들이 우리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긍정적 마음으로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준 전자공학과

저는 소프트일렉트로닉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다기능 유연 전자소자를 실제 제작하고 웨어러블 센서에 응용합니다. 피부 표면에 붙이는 전자소자를 제작하면서, 실시간 헬스케어 및 진단 의학에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숙제와 과제에 시달리면서 친구들과 선구자상, 성호관 앞에서 뛰놀던 것이 엇그제 같습니다.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대학 시절은 정말 뜻 깊고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도 귀중하게 생각하며 교직에 임하겠습니다.



안지연 다산학부대학

학부에서 동양화와 심리학을,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전문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으로 일했습니다. 미술 심리 및 미술 교육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앞으로 미술과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구성원들이 예술과 연결된 삶과 삶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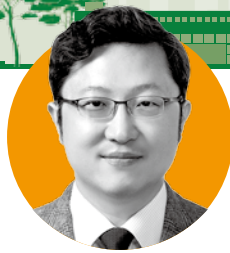
김태준 의학과 신경과학교실

신경과에서 다루는 여러 질환 중에서 뇌전증, 수면장애, 뇌염에 대해 교육·연구 및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마다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긴장되기도 하지만 기분 좋은 설렘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질문에 저도 배우고 공부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다양한 학생, 연구원과 함께 여러 창의적인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당장은 현재 매진하고 있는 뇌전증의 머신러닝 연구와 수면장애의 빅데이터 연구를 잘 마무리하여 좋은 성과를 내면 합니다.



윤종희 물리학과

박사과정부터 빛을 이용해 질병을 정밀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광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광학은 물리학을 기반으로 전산, 생명과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융합연구 분야입니다. 지난 3년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캐번디시 연구소(Cavendish laboratory) 및 영국 암센터(Cancer Research UK) 소속으로 암의 조기 진단에 응용할 수 있는 초광량 내시경 등을 개발했습니다. 최근 의광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 측정된 영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질병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물리학과에서도 광학, 생명과학, 전산을 아우르는 융합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광학기술이 연구실 수준에서 개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주대에는 기초과학 연구수준이 높고, 훌륭한 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실제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싶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훌륭한 교수님,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암의 조기진단 연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 관련 연구도 해볼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하는 교수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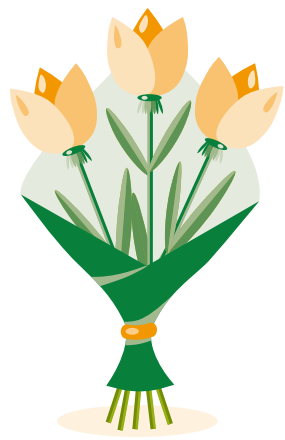
이은상 법학전문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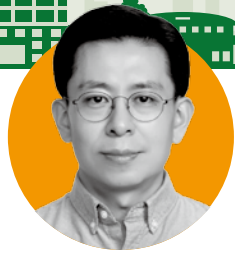
약 13년간 법원에서 판사로 일하다가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부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법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법적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물론 보람되었지만, 향후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 세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제 능력과 열정을 쏟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교수로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 교수로서, 공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생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미래지향적 법조인 양성이 목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의 소중한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믿고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해나갈 수 있도록, 교수로서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진실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민현정 융합시스템공학과

면대면으로 학생들을 마주하지 못해 무척 아쉽지만 온라인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기쁩니다. 학생 여러분, 생각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실천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요! 관심 연구 분야: 시로보틱스,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 최적화, 사물인터넷





장두영 국어국문학과

고교시절 문학 수업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문학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한국 현대 소설을 전공하여 한국 현대문학 연구자로서, 또 문학평론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 소설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해낸 문학 작품을 하나씩 가슴에 품어보기를 권합니다. 전공 공부에 바쁘고, 취업 준비에 정신 없겠지만, 소중한 정신적 자양분을 섭취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문학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학 시절 책 속에서 주인공과 함께 뛰어다니고, 고민하고, 함께 꿈꾸는 그 생생한 정신적 경험이란 실제의 경험 못지않게 여러분에게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강의실에서든, 교양 관련 프로그램에서든 여러분이 소설 작품을 읽을 때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최준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저는 유기화학반응 개발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박사후 연구원으로 단백질의 당화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신약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주대에서 유기화학을 바탕으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규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암과 같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신규 치료제 개발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자신만의 연구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 및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려는 연구는 화학과 생명공학 등 다양한 학문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실사구시 이념과 융복합 학문을 중요시 하는 아주대학교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즐겁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융복합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학생들도 자신의 전문분야 개발을 바탕으로, 확장을 통하여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종국 화학공학과

독일, 네덜란드에서 박사 후 연구원 경력을 쌓았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저장·전환장치(배터리, 슈퍼커패시터, 연료전지)와 비균질계 촉매(고순도 수소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다공성 에너지 소재를 합성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학생 여러분께 좀더 친밀하게 다가가서 학교 생활, 진로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화공 에너지 소재 연구를 학생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수행하고 싶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소재 합성·응용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저의 유럽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유럽 단기연수, 단기 인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아쉽습니다. 빨리 학생 여러분을 만나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기를 고대합니다.



조평구 의학과 신경외과학교실

척추 질환의 대부분은 퇴행성 질환에 의한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이 분야 중에서도 미세침습 치료를 통한 통증 치료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적 수술, 비수술적 통증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증·미세 침습 치료는 치료 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줍니다. 환자들이 더 밝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신경외과가 뇌만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척수라는 신경분야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질환이 환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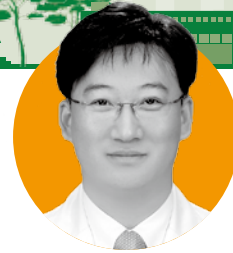


최지웅 의학과 피부과학교실

피부암과 같이 수술이 필요한 피부질환이나 탈모, 손발톱 변형 등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피부과학회를 비롯한 여러 산하 학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피부과학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원으로서 아주대의 학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며, 교육자로서의 소임 역시 다하고자 합니다. 따뜻하고 인간적인 의사가 되고자 평생을 노력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마음 속 깊이 새겨두고, 의학자로서 지난 17년 동안 제가 느낀 보람과 긍지를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경쟁과 변화로 점점 더 힘든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럴수록 원칙과 순수함을 잃지 말고 바른 길을 찾아가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학생 여러분께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최윤석 의학과 중앙혈액내과학교실

혈액질환 진료 및 조혈모세포이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졸업 후 내과 및 그 중에서도 혈액종양학 세부 수련을 마친 전문의임과 동시에, 전문의 취득 후에는 KAIST 의과대학학원에서 박사과정 학생으로 수학하면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과학자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을 찾는 혈액질환 환자 및 가족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 드리고, 최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상 교수로서의 당연한 포부이겠지요. 더불어 제가 익혀온 소중한 연구의 경험들을 우리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학위 과정을 통해 사람의 면역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값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면역학적 지식은 실험 동물 모델을 통해 도출되고 검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에서 얻은 검체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최신의 면역학적 지식을 사람의 질병이라는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해보고 실제 환자의 진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해석해 나가는 과정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초과학(기초면역학)과 응용과학(각종 임상의학)의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연구를 우리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발전시켜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폭넓은 기초과학 공부의 경험에 있는 비(非)-의과대학 학생이 도전해 볼 만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싶은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환영합니다

신규 임용 교원



권항원 행정학과
곽원진 화학과
박민재 e비즈니스학과
박성준 전자공학과
민현정 융합시스템공학과
안지연 다산학부대학
윤종희 물리학과

이은상 법학전문대학원
장두영 국어국문학과
최준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황종국 화학공학과
권준식 의학과 외과학교실(외상외과)
김도정 의학과 흉부외과학교실
김태준 의학과 신경과학교실

문중환 의학과 외과학교실(외상외과)
박지은 의학과 호흡기내과학교실
박지은 의학과 영상의학교실
손주혁 의학과 산부인과학교실
양민재 의학과 소화기내과학교실
이인경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교실
정용식 의학과 외과학교실

정우상 의학과 영상의학교실
정준호 의학과 흉부외과학교실
조평구 의학과 신경외과학교실
최완선 의학과 정형외과학교실
최윤석 의학과 중앙혈액내과학교실
최지웅 의학과 피부과학교실
허지미 의학과 영상의학교실

‘할일을 할 뿐’
교직원마이크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기숙사 코디네이터 **장해경**

코로나19로 전세계가 멈춰버린 2020년의 봄, 아주대학교 역시 남다른 신학기를 맞이했다. 사상 초유의 개강 연기 조치와 대면 강의 전면 중단 및 온라인 강의 시행, 공용 시설 이용 제한 등 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전체 구성원이 그야말로 전면전을 펼쳐야 했다. 대학은 특히 지난 2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예정되어 있던 개강에 맞추어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 특히 중국을 경유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했기 때문. 아주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숙사 건물 중 화홍관을 격리동으로 지정해 운영했다. 2월부터 약 두 달 간 50명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격리동에 머물렀고, 2주를 오롯이 방에만 있어야 하는 이들의 건강 체크와 식사 제공, 방역 등의 대응을 위해 기숙사는 그야말로 초비상이었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그 최전선을 지켜온 기숙사 외국인 학생 담당 코디네이터 장해경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코로나19 사태 석 달, 나는 이렇게 지냈다

처음 코로나19 상황을 접한 것은 설 연휴 무렵(1.24)이었던 것 같아요. 명절을 보내러 집으로 돌아간 학생들과 안부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었지요. 중국 상황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학생들의 거주지와 안전을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할 경우 어떤 조치와 대비를 해야하는 지 매일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결정과 수정이 반복됐지요.

다행히 명절을 보내고 학생들이 돌아올 무렵 기숙사는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던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방역 물품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시설 담당자의 발 빠른 대응으로 관련된 모든 물품도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격리실로 지정된 화홍관에는 기존에 머물고 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사전에 모든 짐을 정리해 다른 기숙사 공간인 국제학사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중국 학생들이 한 두 명씩 돌아오면서 자가격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하나 둘씩 발생하기 시작했죠. 중국에서 돌아온 학생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국제학사로 옮겨간 외국인 학생들 중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엄청난 방호복과 마스크로 무장을 한 채로 이 학생들과 병원 선별진료소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중국 학생들의 격리가 끝나갈 무렵, 이번에는 예정되었던 개강에 맞춰 입국한 유럽 학생들의 격리가 시작되었어요. 그동안 고생한 저를 배려해 다른 부서의 선생님들이 함께 대응해 주셨죠. 그런데 문화적 차이가 큰데다 코로나19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보니 소소하게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행히 유럽 학생들의 자가 격리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기숙사 격리동 지정,
반복되는 회의에 결정·수정 이어져
방호복·마스크로 무장
선별진료소 방문도 수차례
자원봉사 나서준 학생들,
함께 해준 동료들에 고마워
”

가장 힘들었던 시간

국제학사에 머물던 한 중국인 학생에게 심한 고열과 인후통이 있었어요. 학생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서 새벽 4~5시에 제가 기숙사로 달려오는 일도 있었고, 여러 차례 함께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 19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니 다행히도 학생의 상태가 나아졌어요. 낮선 곳에서 학생이 홀로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그동안 중국에서 마음 졸였을 학생 부모님 생각에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어요. 나중에 이 학생이 학교로 감사의 동영상 찍어 전 해와, 함께 고생한 모든 분들이 보람을 느끼기도 했죠.

함께 해준 이들

모두 처음 겪는 상황에 두렵고 힘들었던 2월, 방학 기간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있던 중국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돕고 싶다고요. 중국어가 서툰 저를 위해 학생들은 중국어 안내를 비롯한 여러 일에 힘을 보태 주었어요. 주말에도 밤늦게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이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저 혼자로는 못했을 일이에요. 이 학생들에게 배운 중국어로, 격리 중인 중국 학생들과 소통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어요. “밥 먹어”, “일어날 시간이야”, “아직도 자니?” 엄마의 잔소리 같은 말들이에요. 화홍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보안실, 미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못다한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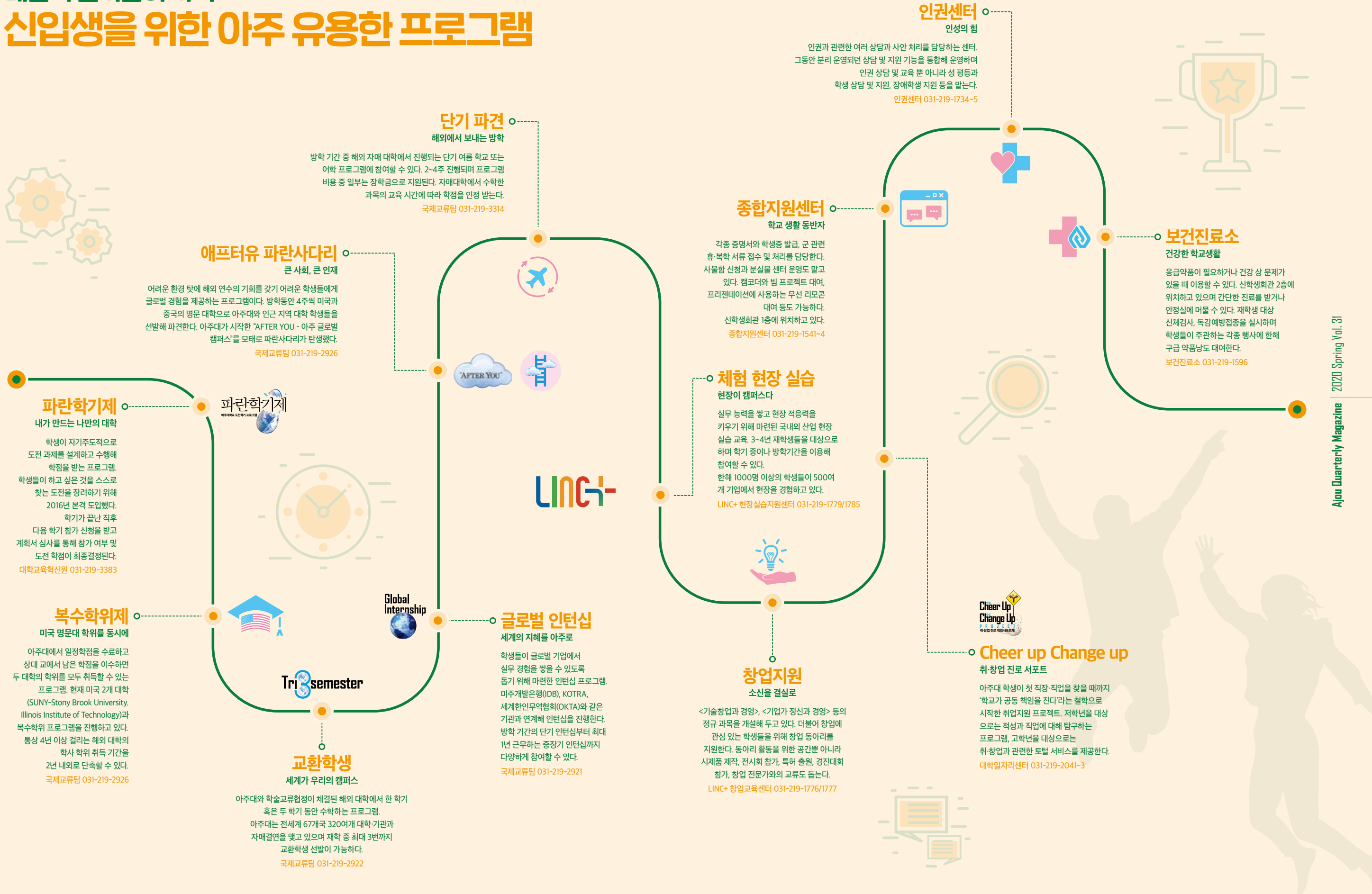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묵묵히 학교의 조치에 따라 주고 불편을 감수하며 협조해 주었던 모든 학생들 정말 고맙습니다. 위기를 마주하면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진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일상에 감사하고 우리 삶에 더욱 겸손해지는 경험도 되지요. 저 역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④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예방, 비대면 수업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아주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와 원격수업지원TF를 가동하고,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사진 왼쪽부터 방역 작업중인 기숙사 풍경, 자가격리 중인 해외 입국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교직원들의 모습, 코로나19 대응 회의 모습.

아주의 새 출발 프로그램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 - 신입생을 위한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



RESEARCH NEWS >>>



* 사진의 일부는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자가면역·염증성 질환 치료제 개발

최상돈 교수
생명과학과

최상돈 교수와 김욱 교수를 비롯한 아주대 교수들이 참여한 연구팀이 자가면역·염증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전신훈반루푸스, 류마티스관절염을 비롯한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입증해냈다.

관련 논문은 국제 학술지 <바이오매터리얼스(Biomaterials)> 3월 1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최상돈 교수(생명과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가 교신저자로 참여했고, 김욱 교수(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의대 서창희 교수(류마티스내과)와 김순선·정재연 교수(소화기내과)가 함께 했다. 아주대 샤 마사드 연구교수와, 경희대 강동병원 이상호 교수(신장내과)도 연구에 참여했다. 분자과학기술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김기영 학생, 아스마 아혁 학생도 공동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팀은 자가면역·염증성 질환 펩타이드 치료제를 개발해 비알콜성 지방간염, 전신훈반루푸스, 류마티스관절염, 건선과 패혈증 질환에 대해 동물모델에서 치료효과를 입증해냈다. 자가면역질환은 신체 조직이나 세포에 대한 비정상적 면역반응이 나타

나 발생하는 질환이다. 전신훈반루푸스를 포함해 약 80여가지의 질환이 알려져 있다. 염증성 질환은 염증을 주병변으로 하는 질병의 총칭으로 비알콜성지방간염, 알츠하이머병, 패혈증 등이 포함된다.

자가면역·염증성 질환의 초기 발병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미생물과 병원에서 유래된 물질에 의해 감염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인체 내부 면역속주에서 유래된 물질에 의해 비감염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 모두 톨-유사 수용체의 부적절한 활성화로 생기는 반응이지만 이에 대한 이해나 기전 규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팀은 광범위한 톨-유사 수용체 제어 능력을 가진 펩타이드(MIP2)를 발굴, 염증성 사이토카인 제어 기능을 확인해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기초·원천연구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유전자 가위기술 활용 대장암 치료제 개발

윤태종 교수
약학과

아주대 윤태종 교수 연구팀이 나노-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대장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대장암 항암제에 치료 효과를 보이지 않는 유전자 변이 대장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이다.

윤태종 교수(약학과)는 조영석 가톨릭대 교수(의과대학 내과학교실)와 함께 나노 전달체에 유전자 가위 단백질 구조체를 탑재하는 방식을 통해 유전적 이상 부위를 효과적으로 편집함으로써 새로운 대장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저명 학술지 <나노 리서치(Nano Research)> 4월4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의 제목은 ‘항암제 내성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편집 나노 입자 시스템의 치료적 접근(Gene editing particle system as a therapeutic approach for drug-resistant colorectal cancer)’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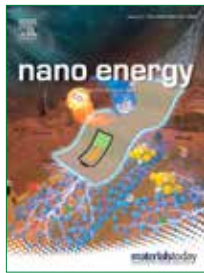
윤 교수팀이 개발한 방법은 현재 대장암 치료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에 저항성을 가져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세록시맵(cetuximab) 항암제는 대장암 치료를 위해 많이 쓰이고 있지만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KRAS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많은 연구자들이 KRAS 유전자 변이에 의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유전자 변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암이 재발하면서 근본적 치유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 왔다. 때문에

유전자 가위 기술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단백질 형태의 유전자 가위 소재가 체내에서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어 효율성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이에 윤태종 교수 연구팀은 나노 전달체에 유전자 가위 단백질 구조체를 탑재하여 유전적 이상 부위를 효과적으로 편집함으로써, 높은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나노 리포좀 구조체나노를 사용하여 KRAS 유전자 변이 부위를 편집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단백질 소재를 탑재했다. 또한 이 나노 구조체 표면에 대장암 표적을 위한 항체를 도입함으로써, 유전자 가위 소재의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생체 내 실험(in vivo)에서 암조직으로의 유전자 가위 소재 전달 효율은 60%에 달했으며, 동물 모델에서의 치료 효과는 대조군 대비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

윤태종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바이오 물질을 효과적으로 세포나 조직에 전달할 수 있는 나노 소재를 연구해온 전문가다. 최근에는 유전자 가위 기술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낮은 체내 안정성과 세포 침투율 ▲국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등을 극복하고자 나노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에 집중해 왔다. 윤 교수는 아주대 산학협력단 산하의 엔포유 기술지주회사 (㈜진메디)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이 회사를 통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형탁 교수
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촉각 인식용 인공 신경소자 개발



서형탁 교수 연구팀이 촉각 인식용 인공 신경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생체 촉각과 신경을 모사한 신소자를 산화물 이중 접합 구조를 이용해 구현한 것으로 피부부착형 전자장치와 인공 지능형 센서기술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형탁 교수(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는 촉각성 신경 감각을 구현하는 촉각 모사 인공 시냅스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촉각 인지를 위한 인공 압전 시냅스(Artificial piezotronic synapse for tactile perception)’라는 논문으로 나노 분야 국제 학술지 <나노에너지(Nano Energy)> 4월 15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아주대 김상환 교수(전자공학과)와 쿠마 모히트(Mohit Kumar) 연구원이 함께 참여했다.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 중 촉각은 시냅스라 불리는 신경망을 통해 피부 말단의 자극 수용체에서 뇌신경으로 감각 신호가 전달된다. 인간의 촉각 신경은 터치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강도가 다른 감성적인 느낌과 조화되어 기억으로 저장된다. 따라서 인간의 촉각 신경을 모사하기 위한 인공 촉각 신경 소자는 외부 물리적인 접촉의 강도를 상대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고 저장한 뒤, 기억하는 기능이 모두 통합되어야 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다.

서형탁 교수 연구팀은 니켈산화물과(NiO) 아연산화물(ZnO)로

이루어진 이중 구조 기반 인공 감각 시냅스로 촉각성 신경 감각을 구현하는 인공 스냅스 소자를 개발해냈다. 연구팀은 머리카락이 외부 압력을 감지하는 방식을 모사, 산화물 이중접합 구조의 수직 감지체를 만들었다. 이 감지체가 압력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 전류-전압 곡선 변화를 발생시켜 생체 촉각 감지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해낸 것.

특히 이러한 촉각성 전류 변화를 비휘발성 메모리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전하 보존을 통해 ‘기억’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소자 구조는 또한 인공 신경 회로에 필요한 대표적 특성인 신호 강화와 약화, 시간 차와 크기에 따른 신호 변화 같은 뉴런 시냅스의 모든 전형적 특성을 구현할 수 있어 생체 촉각 신경 회로와 기능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서형탁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인공 촉각 신경 소자는 기존의 다른 인공 촉각 회로와 비교해 복잡성이 낮고 전력 소비도 적은 데 비해 탁월한 환경 적응형 인공 터치 감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형 센서기술, 피부부착형 전자 장치, 로봇 공학 및 장애인을 위한 인공수족 같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주관 미래신소자기술원천기술개발사업 및 중견·기초 연구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고부가가치 금속유기구조체 전환기술 개발

황종국 교수
화학공학과

황종국 교수가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이 저가의 금속 산화물을 고부가가치의 금속유기구조체 및 탄소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황종국 교수(화학공학과)와 폴란드 포즈난대학 조안나 고시안스카(Joanna Goscińska) 교수, 영국 글래스고대학 베르하르트 슈미트(Bernhard Schmidt) 교수, 스페인 바스코카학재단 스테판 부트케(Stefan Wuttke) 교수는 관련 연구 성과를 영국왕립화학회가 발간하는 저명 학술지 <케미컬 소사이어티 리뷰(Chemical Society Reviews)> 4월6일자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논문의 제목은 ‘금속유기구조체와 탄소 소재의 형상제어: 형상제어 유도체로서 금속산화물(Controlling the morphology of metal-organic frameworks and porous carbon materials: metal oxides as primary architecture-directing agents)’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저가의 금속 산화물을 고부가가치를 갖는 금속유기구조체 및 탄소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제조방법 ▲전환 메커니즘 ▲적용 방향 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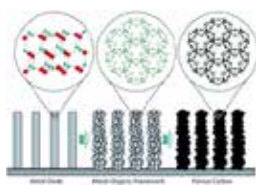
금속유기구조체(metal-organic frameworks, MOF)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다공성 소재로, 금속이온과 유기 리간드의 배위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골격구조를 형성하는 결정성 물질이다. 뛰어난 물리화학적 특성(금속유기구조체 1g은 100m·70m 규격 축구장 만큼의 비표면적을 가짐)으로 인해 금속유기구조체는 가스의 저장과 분리, 비균질 촉매, 에너지 저장 및 전환 장치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기존에는 분자 수준에서 금속유기구조체의 망구조(topology)를 예측하고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6000개의 금속유기구조체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분자 수준에서 빠르고 복잡하게 결정화되는 특성 때문에, 금속유기구조체가 최종적으로 어떤 거시적 모양과 형상을 가질지 예측하거나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공동 연구팀은 복잡하고 정교한 형상을 갖는 금속유기구조체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속 산화물을 유기 리간드와 반응시켜 금속유기구조체로 직접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금속 산화물은 기존의 기술을 통해 원하는 크기와 형상으로 쉽게 성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물, 전도성 기판 등의 이중 소재와 복합화될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형태와 패턴으로 성형된 금속 산화물을 이용하면, 기존의 방식으로 구현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정교함과 기능성을 갖는 금속유기구조체 및 금속유기구조체 유래 탄소 소재의 합성이 가능하다.

황종국 교수는 “이번 총설 논문을 통해 복잡하고 정교한 형상을 갖는 금속유기구조체의 제조법과 제조 메커니즘을 정리했다”며 “형상제어된 금속유기구조체는 향후 에너지, 환경, 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과 신뢰를 핵심가치로”

제14대 의무부총장·의료원장에
박해심 교수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2020년 3월1일자로 제14대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박해심 교수(알레르기내과학교실)를 임명했다. 임기는 2020년 3월1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2년이다. 박해심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아주대학교의료원 최초의 여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섬세하고 따뜻한 리더십이 기대된다. 알레르기 분야에서 세계적 명의로 인정받고 있는 박해심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3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사우스 햄튼대학 연구원 생활을 거쳐 1995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임상시험센터장, 연구지원실장, 첨단의학연구원장을 역임했고 연구중심 병원 육성사업 면역질환 연구단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알레르기학회 집행이사, 세계알레르기학회 학술위원장,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 대한직업성천식학회 회장,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AAIR(알레르기 SCI 잡지)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학술지에 400여편 이상 주저자로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알레르기와 임상 면역 분야에서 난치성 천식의 조기 진단법, 생체지표 및 조기진단법 개발, 면역조절제 개발 관련 우수 연구성과로 저명하다. 박 신임 의무부총장은 미국, 영국, 유럽 알레르기학회 정회원 활동을 비롯해 유수의 국제 학회 학술위원 및 위원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알레르기 학회 중 가장 권위있는 유럽알레르기임상면역학회(EAACI)에 2016년, 2017년에 이어 2019년 초청돼 강연 및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알레르기 분야의 세계 최고 교과서인 <Middleton's Allergy>의 동양인 최초 저자(Leading Author)로 참여한 바 있다.

박해심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대한의사협회 광혜 학술상 ▲서울시의사회 유한 학술상 ▲과학기술총연합회 우수 과학자상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상 ▲유일한상 ▲세계알레르기학회 특별공로상 ▲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시상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등을 수상했다.

박해심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박사
영국 Southampton 대학 연수
EBS 알레르기분야 명의 선정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역임
아주대의료원 연구지원실장 역임
아주대병원 임상시험센터장 역임
아주대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장 역임
아주대 의과대학 알레르기내과 교수

AWARD & SELECTION

우수 연구자 시상 ‘Ajou Top Researcher’에 이제찬 교수



활발한 연구를 통해 아주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교수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2019학년도 연구 우수 교수’ 수상자가 발표됐다.

시상식은 5월13일 오후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렸고 ▲부문별 시상 ▲총장 축하 ▲연구 발전 방향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은 ▲인용(Citation) ▲영향력 지수(IF) ▲국제협력(International)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더불어 ‘올해의 연구자(Ajou Top Researcher)’ 부문이 올해부터 신설됐다. 지난해부터 수상해온 인용(Citation) 부문은 논문의 질적 평가요소인 FWCI(상대적 피인용지수, SCOPUS DB기준) 상위 1% 이내 논문을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편당 500만원의 부상이 주어진다. 이번 수상자는 이교범 교수(전자공학과)와 염동일 교수(물리학과)로, 이교범 교수는 4편의 해당 논문을 펴냈고 염동일 교수는 1편의 해당 논문을 펴냈다.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를 기준으로 하는 IF 부문은 전임 교수가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논문을 등재한 실적 중 해당 저널의 영향력 지수가 30 이상인 경우에 시상한다.

이 부문에서는 ▲조인선 교수(신소재공학과) ▲강대식 교수(기계공학과) ▲이재웅 교수(물리학과)가 수상했다. 주저자인 경우 1000만원, 공저자인 경우 500만원의 부상이 주어졌다. 조인선 교수의 경우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IF 33.25)>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해 1000만원의 부상을 받았다. 강대식 교수와 이재웅 교수는 공저자로서 각각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강대식 교수는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IF 33.25)>에, 이재웅 교수는 <SCIENCE(IF 41.06)>에 논문을 실었다. 한편 영향력 지수(IF) 부문에서는 JCR 기준 IF 백분위 25% 이내(이공계열)와 50% 이내(인문사회

계열)로 나누어 해당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이공계의 경우 총 수상자가 102명(논문 245편)으로, IF 백분위 5% 이내인 경우 각 300만원, 25% 이내인 경우 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인문사회계의 경우 수상자는 총 15명(논문 22편)으로 IF 백분위 10% 이내인 경우 상금 300만원, 25% 이내인 경우 200만원, 50% 이내인 경우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이공계는 ▲이제찬 교수(환경안전공학과) ▲서형탁 교수(신소재공학과) ▲정재성 교수(전자공학과)가 대표로 수상했고, 인문사회계열은 ▲강주영 교수(e-비즈니스학과) ▲배형욱 교수(금융공학과)가 대표로 수상했다. 올해 신설한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논문(FWCI 1.5 이상 논문)을 가장 많이 펴낸 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상으로 200만원이 주어졌다. ▲이범진 교수(약학과) ▲이창구 교수(환경안전공학과) ▲고제성 교수(기계공학과) ▲전상민 교수(약학과) ▲이제찬 교수(환경안전공학과)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금 합계가 가장 높은 교원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연구자상(Ajou Top Researcher)’의 주인공에는 이제찬 교수(환경안전공학과)가 선정됐다. 이제찬 교수의 연구실에는 ‘2019 올해의 연구자(Ajou Top Researcher)’ 현판이 설치된다. 시상식에서 박형주 총장은 “우리 학교의 훌륭한 연구력을 이끌어온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양질의 논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판단 기준의 변화에 발 맞추어, 관련 요소를 교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WARD & SELECTION

교육 우수 교수 10인 선정 대상에 신종호 교수

‘2019학년도 교육 우수 교수(Teaching Award)’ 시상식이 5월13일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상의 영예는 신종호 다산학부대학 교수에게 돌아갔다. 교육 우수 교수는 소속 대학(원)장과 부처장의 추천을 받아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교육 발전에의 기여도 ▲교육방법의 혁신성 ▲교육에 대한 열정이 평가 기준이다. 이번 교육 우수 교수 선정은 대상(1명)과 우수상(9명) 부문에서 진행됐다. 우수상은 ▲우수 강의 ▲교수법 혁신 ▲조교수/신임교원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패가,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상패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2019학년도 교육 우수 교수(Teaching Award)’ 대상은 신종호 교수(다산학부대학·교수학습개발센터 센터장)가 수상했다. 신 교수는 <창의적 사고 훈련> 수업에서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신종호 교수는 매해 새로이 정비한 강의계획서를 통해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고, 수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의 주인공이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끊임없는 교수법 혁신 노력을 통해 플립드 러닝, 팀기반 학습 등을 도입해 활용해왔다. 이에 교수님의 열정,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이었으며 자신감과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었다는 학생들의 피드백이 많았다.

우수상은 ▲박성진 교수(전자공학과) ▲정태영 교수(미디어학과) ▲Paul Rajib 교수(소프트웨어학과) ▲염동일 교수(물리학과) ▲김정호 교수(경제학과) ▲박재연 교수(국어국문학과)에게 돌아갔다. 신임교원 부문 우수상은 ▲안정섭 교수(소프트웨어학과) ▲이인환 교수(화학과)와 ▲박철형 교수(글로벌경영학과)가 받았다. 박철형 교수는 교수법 혁신 부문에서 수상했다.



2020 중등교원 임용고시 35명 합격



아주대 교육대학원 학생 34명과 학부 졸업생 1명이 올해부터 중학교·고등학교 교사 자격을 갖추게 됐다.

아주대는 각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한 2020년도 중등교원 임용고시에서 총 3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에서 31명의 합격자가 나왔고, 소프트웨어 전공에서 3명, 학부 영어교육 전공에서 1명이 합격했다.

그중 강성민 학생(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은 제주도 지역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수석(전문상담) 합격했고, 노은빈 학생(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은 경기도 지역 임용시험에서 차석(전문상담/초등)으로 합격했다. 학부 영어영문학과 교직과정을 수료한 이예랑(영어영문13) 동문도 전북 지역 영어 교사로 차석 합격했다.

교육대학원은 “매년 임용고시 합격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상담심리 분야 합격자 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며 “임용고시 준비 학생에 대한 교육대학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학생-교수-학교 프로그램의 긍정적 선순환 덕분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육대학원은 지난 2018년 총 18명(상담심리 16명, 영어 1명, 수학 1명)의 임용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다. 2019년에는 23명이 합격했고 올해에는 3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합격자는 상담심리 21명, 소프트웨어 2명이며 올해는 상담심리 31명, 소프트웨어 3명이다.

2020년 중등교원 임용고시 합격자

상담심리(31명)

▲강동엽 ▲김미숙 ▲강선희 ▲강성민 ▲구인회 ▲김동희 ▲김리나 ▲김서영 ▲김수지 ▲김아름 ▲김영민 ▲김예은 ▲김용필 ▲김준태 ▲김진섭 ▲노은빈 ▲노혜원 ▲맹민혜 ▲문보배 ▲문준현 ▲박진아 ▲신소현 ▲오은송 ▲오재현 ▲윤평하 ▲이서현 ▲이아영 ▲정혜라 ▲조수연 ▲조수희 ▲최정현
(이상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소프트웨어(3명)

▲김영조 ▲박세진 ▲이은별 (이상 교육대학원 소프트웨어교육 전공)

영어(1명)

▲이예랑 (영어영문학과 13)

합격자가 전하는 꿀팁 그리고 포부



제주지역 수석_전문상담 강성민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다양한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하라. 혼자 공부하는 것에 더해 대면·전화 스테디 그룹을 활용해 학습한 내용이 바로바로 도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지체없이 답안작성이 가능해진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잘 쉬자. 지치지 않고 즐겁게, 집중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경기지역 차석_전문상담 노은빈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규칙적으로 공부하되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집중력을 확보하고,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교사로서 만나는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에 마주하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줄 아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해간다면 그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옆에서, 그리고 뒤에서 든든히 버텨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



전북지역 수석_영어 이예랑 영어영문 13

“기본 개념과, 기술문제 분석,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학부생으로 돌아간다면, 매일 꾸준히 영어지문을 읽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겠다. 빠른 시간에 긴 지문을 정확히 읽고, 답을 찾아 간결히 서술하는 능력이 필요해서다. 학생 한명 한명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소통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AWARD & SELECTION

교육대학원, AI 전문 교사 양성 위해 ‘시융합교육전공’ 신설

아주대 교육대학원이 시융합교육 전공을 신설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교육대학원 연계 교사 시융합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 승인을 기반으로 교육대학원은 올 2학기부터 석사과정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대학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 학교 교육 및 수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융합교육 전공을 신설 운영한다. 학생들이 인공지능(AI) 기초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타 교과 지식과의 융복합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혁신을 주도하는 교원을 양성하겠다는 것.

지난해 교육부는 전국 교육대학원에 시융합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초·중등 교원을 선발해 4학기 동안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한 교원들은 석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현장에서 시를 활용한 법교과 수업을 담당하게 된다.

아주대 교육대학원은 초·중학교 현직 교사의 역량 제고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시융합교육 전공 석사과정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시 교육대상자 선발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대학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교사 이외에도 시융합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함께 모집한다.

시융합교육 전공은 ▲AI교육트랙 ▲시융합교육트랙 두 트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I교육트랙에서는 AI 이론과 수학·SW기반의 AI 교육 등 시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전문 내용 학습이 진행된다. 시융합교육트랙에서는 시를 활용한 전문 교수학습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하게 된다.

AWARD & SELECTION

특허청 특허 캡펀드 운영기관 선정, 기술 상용화 지원

아주대가 특허청의 특허 캡펀드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허 캡펀드는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와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간의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는 지난 2월19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청과 특허 캡펀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 캡펀드 운영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국민대와 서울대, 재료연구소가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아주대의 경우 국민대와 함께 설립한 기술자주회사 ㈜엔프유가 이번 특허 캡펀드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아주대를 비롯해 이번엔 선정된 기관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2억~4억원의 기술상용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특허 캡펀드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와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간의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 검증과 시제품 제작, 기술 마케팅 등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특허 캡펀드를 통해 펀드처럼 기술 이전으로 기술료를 회수하고 이를 다른 유망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AWARD & SELECTION

문우진 교수, ‘제2회 민주주의학술상’



정치외교학과 문우진 교수가 민주주의 학술원 ‘제2회 민주주의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민주주의학술원은 민주주의 학술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민주주의학술상을 제정, 시상하고 있다. 민주주의학술상 수상자는 민주주의 연구 발전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서적 및 논문을 낸 연구자 가운데 선정한다. 2년에 한번 시상하며 상장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문우진 교수는 최근 펴낸 저서 <한국 민주주의 작동원리>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가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석했다. 문 교수는 제한된 정당 체제와 단순다수제 위주의 선거제도를 가진 한국에서, 어떤 전략을 통해 정치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다수’를 형성해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또 제한된 정당 체제와 단순다수제 위주 선거제도의 조합이 지역주의 투표, 인물투표, 비례급투표, 정책대결의 부재, 책임정치의 부재, 대통령 지지율의 임기 말 폭락 같은 한국의 정치병리학적 문제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설명했다.

PEOPLE

조은혜 교수,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 선임



아주대 의과대학 조은혜 교수(약리학 교실)가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올해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이다.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뇌·첨단의공학단은 국내 뇌연구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조은혜 교수는 단장으로서 정부에서 위탁받은 뇌·첨단의공학단 소관 ▲사업과제 기획 및 사업화 연계방안 검토·도출 ▲평가지원 진도점검 및 성과 활용 촉진 ▲연구수요, 기술예측, 연구동향 등 조사·분석 ▲기술이전·사업화 타당성 검토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총괄·조정 등을 맡게 된다. 조은혜 교수는 지난 1995년부터 아주대 의과대학 약리학 교실 강단에 서왔다. 교세포와 뇌영중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며 뇌과학분야 전문지식과 연구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AWARD & SELECTION

박기동 교수, ‘2020 과학정보통신의 날’ 과학기술훈장 웅비상



응용화학생명공학과 박기동 교수(공학대학원 원장)가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21일 ‘과학의 날’과 4월22일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지난 4월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상자 129명(과학기술 진흥 부문 79명, 정보통신 발전 부문 50명) 중 대표 수상자 8명에 시상하는 것으로 축소된 대신 최초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박기동 교수는 질병 진단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기능성 고분자 생체소재, 의공학 기술을 개발해 국내 생체재료·의공학 기술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PEOPLE

박래웅 교수팀, 코로나19 퇴치 연구 위해 빌&멜린다 재단과 협약



의과대학 박래웅 교수(의료정보학과)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빅데이터 연구에 나선다. 박 교수팀은 이를 위해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공동 연구 협약을 맺었다. 박래웅 교수팀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연구비 지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임상검사 데이터를 의료 빅데이터로 변환, 전세계 의료진 및 과학자들의 연구와 국제 협력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운영하는 자선재단이다. 박 교수팀은 지난 3월26일부터 올 10월1일까지 약 7개월간의 대구·경북 지역 소재 2개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임상검사 데이터를 공동데이터모델 기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공동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세계 표준에 맞추어 익명화·표준화한 것이다. 공동데이터모델을 통해 연구자는 세계 표준에 맞추어 분석 프로그램을 작성, 참여 기관에 보내고 분석된 통계를 다시 돌려 받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연구자들은 유용한 의료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 박래웅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료 데이터를 연구팀이 구축한 ‘빅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FeederNet)’으로 빠르게 변환, 전세계 의료진과 과학계가 감염 특성 및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AWARD & SELECTION

김정호 교수, 일자리창출 유공 국무총리 표창



김정호 교수(경제학과)가 ‘2019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정호 교수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공공일자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실천 ▲청년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데 공이 큰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발굴, 포상했다. 김정호 교수는 노동 및 인구경제학 전문가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과 보육, 요양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 단위 공공기관(사회서비스원) 등의 정책 의제에 대해 연구해왔다.

NEWS >>>

AWARD & SELECTION

교육부 대학진로탐색제
시범사업 선정,
'파란학기' 확대

아주대가 교육부 대학진로탐색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대학진로탐색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자유롭게 진로 탐색활동을 한 다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아주대의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이 그 모태가 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3일 대학진로탐색학점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범 사업을 위해 지난해 말 대학들의 신청을 받았고 지원한 38개 대학을 심사했다. 이에 아주대를 포함한 일반대학 7곳과 전문대학 3곳 총 10개 대학을 참여 대학으로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 해동만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진로탐색학점제의 모태가 된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1학기부터 시작됐다. 파란학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도전하고, 이를 통해 인생과 진로에 대한 깨달음과 자신감을 얻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설계한 프로그램으로 파란학기제에 참여하며 이를 성실히 잘 수행한 경우 3~18학점의 정규 학점을 받는다. 2016년 1학기부터 8학기 동안 총 775명의 학생들이 파란학기제에 참여했다. 학교는 앞으로 '파란학기-Extreme'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더욱 장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VENT

공군참모총장 방문,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운영 논의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 관계자들이 아주대를 방문했다. 아주대와 공군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국방디지털융합학과와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기 위해서다. 5월12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 관계자들은 율곡관 총장실에서 박형주 총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환담했다. 이후 연암관에서 공군 관계자들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교수진이 함께 학과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공군과 아주대 간의 계약학과로 2015년 신설됐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들은 공군으로부터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 받으며 졸업 후 공군 장교로 임관, 7년간의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마치면 군에 남거나 방위 산업체, 국방 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 주요 관계자들은 매년 학교를 방문,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들을 직접 만나 격려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행사를 축소해 진행했다.

PEOPLE

환경안전공학과 학부생팀,
SCI저널에 논문 게재

환경안전공학과 학부생들이 '공학 학부생 연구(E-UR)'를 통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SCI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환경안전공학과 권용환, 박찬영, 조유진, 정재현 학생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PET)를 열분해 해서,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학생들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Pyrolysis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over carbon-supported Pd catalyst'라는 제목의 논문을 퍼냈다. 이 논문은 SCI급 학술지 <Catalysts> 2020년 5월호에 게재됐다. 이제찬 환경안전공학과 교수가 지도를 맡았다. 학생들은 2019학년도 2학기 '공학 학부생 연구(E-UR)'를 통해 카페에서 많이 나오는 차가운 음료용 일회용 컵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 실험 설계와 진행을 직접 주도 했다.

아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학 학부생 연구(E-UR)' 프로그램을 마련,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이 보다 깊은 공부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공과대학 및 정보통신대학 소속 학부생들로, 2인 이상의 학생과 지도교수-산업체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선정된 참가팀을 대상으로 재료비와 회의비, 관련 도서 구입비 등으로 팀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PEOPLE

전자공학과 동문,
연이어 국내 대학
교수 임용

아주대 졸업생들이 연이어 국내 대학 교수로 임용됐다. 올 1학기 이준석 동문은 단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임용되었고, 고영중 동문은 부경대 전기공학과 강단에 서게 됐다.

이준석 동문은 전자공학과 전력전자연구실(지도교수 이교범)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고 50여 편의 논문을 펴냈다.

고영중 동문은 전자공학과 전력전자연구실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독일 킬대학교(Kiel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 동문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활용되는 전력변환장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고장 진단 기법을 연구했다.

한편 전력전자연구실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최의민 동문은 지난 2018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로 임용된 바 있다. 최 동문은 덴마크 올보르대학(Aalborg University)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서울과학기술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PEOPLE

축구부 선수 7명,
프로리그 비롯한
성인팀 진출

아주대 축구부 선수 7명이 국내외 프로팀을 비롯한 성인팀에 진출했다.

올해 성인 무대 진출자는 수원FC에 입단한 전정호(17학번, FW), 전남드래곤즈에 입단한 김병엽(18학번, GK)과 ▲김재민(16학번, MF)-경주한수원축구단 ▲이진호(17학번, FW)-오스트리아 ASTV슈타를파우라(3부리그) ▲하재현(16학번, RW)-청주FC ▲김수현(16학번, FW)-춘천시민축구단 ▲김동현(17학번, DF)-평택시민축구단이다.

축구부 선수들의 이 같은 성과는 국내 대학 축구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매년 K리그 프로팀 진출을 위해 300여 개 고교와 대학의 축구선수 9000여 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K리그 프로팀은 연간 평균 100명 가량의 선수를 선발하고 있어, 프로팀 입단을 위한 경쟁률은 최소 90대1 수준이다.

아주대 축구부는 매년 2~3명이 1부 리그 프로팀으로 진출하고 있다. 기타 성인팀에도 매해 5명 이상이 입단해왔다. 수원FC에서 뛰게 될 전정호 선수는 "신인으로서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남드래곤즈의 신인 김병엽 선수는 "프로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가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982년 창단된 축구부는 아주대 동문이자 국가대표 출신인 하석주 감독과 2명의 전담 코치를 중심으로 총 33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축구부는 공격력이 돋보이는 전술을 구사, 재미있는 축구로 국내 대학팀 중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AWARD & SELECTION

김용기 대우교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
부위원장 임명

김용기 국제학부 대우교수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국제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아일보 기자,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연구전문위원을 지냈다.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일자리추진단장을 지내며 '공공부문 일자리 8만개' 공약 설계에 참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민성장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AWARD & SELECTION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노연욱,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대상'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이 삼성전자가 주최하는 '제26회 휴먼테크 논문대상' 동상을 수상했다.

기계공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노연욱 학생은 'Bioinspired Mode Control Micro-Soft Gripper Sensor with Variable Stiffness'라는 논문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노연욱 학생은 MOST 연구실(multiscale bio-inspired technology lab, 지도 한승용 기계공학과 교수) 소속이다.

'삼성휴먼테크 논문대상'은 삼성전자가 1994년 제정한 상으로,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수상자에게는 학부 또는 석사 졸업 후 삼성그룹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관련 직무 입사와 관련해 특전 혜택이 있다. 노연욱 학생은 기계공학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고, 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의 부상도 주어진다.



PEOPLE

이현환 교수,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촉

법학전문대학원 이현환 교수가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상고제도 개선 관련 안건의 연구와 검토를 담당한다.

위촉식은 지난 1월17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현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사법부-입법부-행정부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상고제도는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너무 많아 심리가 부실해진다는 지적 때문에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법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회부된 상고제도 개선 관련 안건의 연구와 검토를 맡겼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상고제도의 장단점 검토와 그에 따른 영향 분석 ▲법조인-국민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방안 ▲구체적 상고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다룰 계획이다.



AWARD & SELECTION

건축공학과 대학원생 정수현,
대한건축학회 논문전
대상

아주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정수현 학생(건축공학과)이 대한건축학회 '2020 춘계학술대회 우수졸업논문전'에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건축학회는 학사와 석사 부문에서 우수한 졸업논문을 접수, 시상하고 있다. 계획, 역사·의장 및 건축론, 도시 및 단지, 환경 및 설비, 구조, 재료, 시공 7개 분야에 대한 논문이 응모 대상이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우수졸업논문전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부문에서 시상했다. 정수현 학생은 학사와 석사 부문을 통틀어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정수현 학생은 지난해 8월 졸업을 위해 준비한 논문을 출품,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논문 제목은 '객체정보 가시화를 위한 3D BIM기반 건물화재정보 관리시스템 Prototype 개발(Development of 3D BIM based Building Fir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rototype for Object data Visualization)'이다. 이 논문에는 건축물 유지관리 단계에서 화재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연구는 차형성 교수(건축공학과)가 지도를 맡았다.



AWARD & SELECTION

전자공학과 대학원생 김동엽,
한국정보과학회
최우수논문상

전자공학과 대학원생이 '2020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학술대회는 지난 2월3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렸다.

전자공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김동엽 학생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표준 준수를 위한 개발자 관점 품질관리 프로세스 정의'라는 논문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자공학과 이정원 교수가 지도를 맡았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다른 분야에 비해 성능과 안전성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국제표준인 IEC62304를 준수하고 방대한 양의 산출물을 갖추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IEC62304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김동엽 학생은 이번 논문을 통해 인공지능 의료영상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두고 개발자 관점에서 국제표준을 준수하면서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의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이에 의료기기 개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냈다. 해당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김동엽 학생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에 이번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석사과정 동안 좋은 연구를 진행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감사했고, 앞으로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에서 더욱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주에 돌려드립니다



민경도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졸업생 54인

2020년 2월 정년을 맞아 퇴임한 민경도 명예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총 2억26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민 명예교수가 3000만원을 기부했고, 뜻을 같이 한 졸업생 54명이 1억9600만원을 기부 약정했다. 이 기금은 법학전문대학원 동문장학(아로장학기금)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리 이슬 커뮤니케이션팀

민경도 명예교수는 지난해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12년 가까이 몸 담았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떠나면서,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법조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두루 만나며 뜻을 모으기 시작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부 문화가 생성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조성해보자는 데 뜻을 함께 한 졸업생들이 힘을 모았다. 이렇게 모인 인원이 54명, 1년부터 10년까지 적지 않은 금액을 약정한 졸업생들의 마음이 모여 큰 움직임이 됐다.

“법관, 변호사로 일하다 자리를 옮겨 아주대학교에서 12년 가까이 교수로 강단에 섰다. 내게 주어진 기회와 함께 했던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학에 기여하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역사가 길고 졸업생이 많은 대학의 경우 동문 선배들을 주축으로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 로스쿨에도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그러한 바람에서 졸업생들에게 후배들

을 위해 형편이 닿는 범위에서 조금씩 모아 보면 어떨까 제안했고, 이를 통해 법조인이 된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것들을 돌려주고, 선후배 모두에게 애교심도 불러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부터 함께 해 온 민경도 명예교수는 최근 주목받아 온 ‘아주대 로스쿨의 힘’에 주춧돌 역할을 한 멤버 중 하나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밀착해 지도하고 출제와 채점, 수업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학교를 떠난 지금, 학생들에게 전하는 조언과 당부 역시 같은 맥락이다.

“법조인이 될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법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타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돌팔이 법조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충실한 공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변호사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법조인으로서는 갖춰야 할 소양과 덕목에 대해 재학 중에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동문장학(아로장학기금) 참여 동문

강예진 공영걸 권대근 권현정 금교륜 김경희 김남훈 김두영 김무송 김민선 김민현 김영상 김준태 김지희 김한나 김현지 김효선 노희철 박상희 박소영 박제현 박종민박황준 백안성 서덕인 신서영 신용섭 신종범 심미영 양승철 오충엽 오혜령 유상호 이덕균 이연주 이예건 이용혁 이재웅 이종현 이형조 이홍재 임윤경 장석준 전진호 정경선 정소망 정현재 조윤주 조현상 추다는 하우원 한상엽 한진철 황춘비 이상 54명

DONATION NEWS >>>

류형준·함효준·이선형 기부자,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에 1억원 기부를 약정한 류형준 ㈜에스킨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부자들의 기부금 전달식이 4월24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류형준 ㈜에스킨 대표이사(아주대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1학기 재학)와 함효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이선형 시설팀장이 참석했다. 박형주 총장은 아주가족을 대표해 감사 인사와 기부자 예우품을 전달했다.

아주대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에 재학 중인 류형준 기부자는 1억원을 기부약정하고 5000만원을 쾌척했다. 류형준 기부자는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발전기금(4000만원)과 개교 5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1000만원)으로 기부금을 사용해달라고 밝혔다.

함효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는 산업공학과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이선형 시설팀장은 개교 5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아주를 빛낸 동문’ 옥외 전시물 오픈

아주대 연암관 1층 외부에 ‘아주를 빛낸 동문’을 주제로 한 전시물이 새로 설치됐다.

아주대 1회 졸업생으로 평생 모은 재산에 더해 시신까지 기증하고 떠난 고(故) 황필상 동문(기계 73)을 비롯해 8인의 동문 이야기가 담겼다.

자동차 생산 분야 전문가인 하연태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산업공학 80), IT 서비스 전문기업 아이티센을 일군 강진모(물리 88) 회장의 신념과 철학도 포함됐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의 안정환 동문(경영 94), 미국 퍼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환 동문(산업공학 99)과 판사로 임용된 신유리 동문(법학 02,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도 함께 소개됐다.

아주대 첫 번째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에서 웹드라마를 제작한 경험을 토대로 영상 콘텐츠 제작사 <밤부네트워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송윤근(문화콘텐츠 12), 정다빈(국어 국문 12) 동문의 모습도 담겼다. 학교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인적 자원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롤모델을 제시하는 등 아주 문화 확산과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갈 계획이다. 한편 박형주 아주대 총장은 지난 4월14일 옥외 전시물 주인공이자 ‘아주 리더스 클럽’ 1기 멤버로 선정된 강진모 아이티센 회장과, 밤부네트워크 송윤근·정다빈 공동대표를 초대해 임명장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주 리더스 클럽’ 제1기 멤버로는 자랑스러운 아주 동문 10인이 선정되었다.



최속희	황선영	(재)구원장학재단	노희철	이상원
최순은	황성욱	(재)아경장학재단	더진국어주대점	이상현
최승순	황성조	(주)더가드오브내추럴솔루션	디자인평킨	이상식
최승현	황인일	(주) 슈퍼리마	류덕수	이성환
최신영	황우성	(주)두아메디칼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주)	이승희
최영두	황원복	(주)돌로스관광여행사	맹순호	이연주
최영재	황윤근	(주)디자인아피	목익수	이영경
최영호	황윤상	(주)벤티코리아	문경식	이영철
최영한	황인국	(주)삼김과나눔	문근정	이영현
최용훈	황인숙	(주)슈프리마아이디	민경준	이영호
최원덕	황정윤	(주)에스에이텍	민현정	이예건
최유진	황지현	(주)이스트소프트	박건수	이윤
최윤호	황진연	GS25아주대점	박광호	이윤운
최용현	황찬원	김원모	박상희	이윤희
최은미	황창순	김동길	박선용	이윤종
최재정		김동한	박성식	이재송
최정예		김미애	박소영	이정우
최정영		김승룡	박승진	이종용
최정재		김승현	박승희	이주철
최정주	발찬기금	김예진	박영석	이주홍
최중식	(주)국민은행우만동지점	강인한	박일기	이준은
최중욱	(주)라이프사이언스	김태규	박재현	이진식
최준환	(주)에스킨	강태현	박종기	이치해
최준원	고수연	김홍민	박종민	이창우
최진구	글든기	고광철	박종식	이철희
최진오	곽기호	고동식	박태준	이학준
최진형	구유헌	고동준	박활준	이형조
최창기	권명경	고등기술연구연구조합	반수형	이홍재
최충식	권오진	고승일	배경민	이호걸
최태근	권향원	고영준	배성준	임류투어(주)
최희선	김완식	고영표	배승환	임강빈
주소정	김기문	공영길	배형식	임동하
주호석	김기현	구건희	백경하	임윤경
탁동현	김동기	권기대	백인성	임학수
표준상	김명희	권대근	법무법인 고운	장길수
표준상	김문석	권대진	법무법인 이강 이종현	장석준
하정임	김미숙	권진상	사회복지법인 건아재단	장용호
한관희	김상일	권현정	서덕인	장은혜
한기복	김선용	금고문	서성일	장준호
한동규	김상중	금동수	서승범	장호
한미란	김승연	김경래	서문지	전성환
한봉희	김용기	김경희	서종택	전진호
한상욱	김용석	김계선	석광열	정경선
한승엽	김환균	김기석	석윤수	정광면
한영민	김은경	김남훈	선준규	정관재
한은숙	김재섭	김동식	소고	정서진
한자성	김훈	김동연	송희	정선희
한재광	남종기	김명남	신동하	정소망
한정석	노형배	김영덕	신병철	정순모
한정숙	류효열	김영현	신서영	정운규
한종민	문승경	김무림	신용섭	정지호
한종호	민영선	김무송	신종범	정찬한
한형욱	박규현	김문규	신종연	정현재
한호	박민영	김민선	심미영	제이엘코퍼레이션
한호운	박지원	김민수	씨퍼스트	조남진
한효식	박한나	김민현	아주대학교 소비조합	조상철
함건주	백선희	김상선		조영상
함경숙	신선희	김서용		조윤주
허려화	신유리	김수용		조윤진
허숙현	신형섭	김숙영		조현상
허순영	심경석	김승범		차환운
허영일	안철희	김승범		채수현
허인영	양지윤	김완현		총동문회
허진	오수익	김연수		(아주대학교)
현대지칠	오육균	김영상		최경덕
현성미	오은애	김영아		최남운
현수람	유경호	김영중		최문호
호종빈	유재석	김영진		최병철
홍기영	유태현	김용구		우진명
홍남기	육용희	김우복		원치호
홍대의	이가희	김윤경		최석관
홍범준	이종관	김윤기		최종영
홍봉숙	이지연	김은경		최종호
홍석범	이지은	김은경		최창호
홍성기	이진욱	김일수		최창호
홍성만	이정숙	김정대		유한영
홍성봉	장기철	김종완		유해성
홍성주	장영수	김준태		유현주
홍성호	장우석	김준호		이강준
홍승렬	전만익	김준환		이건화
홍영수	전수백	김지희		이경태
홍영표	정수용	김진우		이계주
홍원인	조재현	김진욱		이광윤
홍원철	진성호	김창균		이광일
홍윤기	최영은	김철수		이근상
홍진태	최영찬	김충중		현인하
홍철현	최희자	김태갑		이기형
홍한표	추호석	김대균		이기형
홍경주	한재은	김태욱		이동철
황규호	한철호	김하성		이동훈
황덕모	한준	김한나		이만성
황두성	홍석남	김현지		이만호
황명선		김형진		이만호
황민숙		김효선		이범호
황민하		나창은		이범호
황선숙		노형배		이상엽

CREDITS

PUBLISHER *president* 박형주EDITOR *office of communications* 강영화, 이슬, 서정원
ALASKAINDIGO 김유진PHOTOGRAPHER *degital media* 추연호, 신예지, 이지영
BRANDMOVIE 신예찬

EDIT & DESIGN ALASKAINDIGO 강제구, 신혜원

ILLUSTRATION 류희룡

SUPERVISOR *office of communications* 이권

<AJOUINSIGHT> 이 간행물 내용중 상의 후 복제 및 전재를 환영합니다. 구독이나 수신거부, 주소변경은 이메일(hongbo@ajou.ac.kr)로 요청바랍니다.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Tel.031-219-2114

Copyright © 2020 Ajou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1인-1개월-1만원으로 소중한 장학금을!

아주아주 기분 좋은
약속아주사랑 

1년에 250명 이상의 학생에게
12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아주사랑111>에
지금 참여하세요!

아주대학교

아주사랑

연 250명, 12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아주사람’들의 따뜻한 문화입니다.

10주년을 맞은 <1-1-1 프로그램>.

이제 <아주사랑111>로

더 크고 단단하게 새로운 10년을 계획합니다.

00학번~10학번, 젊은 동문의 참여와

순수한 ‘아주사람’의 지원과 사랑을 기다립니다.



단 1만원이라도, 단 1회라도 깊이 간직하고

크게 키워내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전화	031-219-2107~9/2099로 전화주시면 기부상담 및 구두약정 가능
인터넷	대학발전팀 홈페이지(http://ajousarang.ajou.ac.kr)에서 온라인약정 클릭
이메일	ajousarang@ajou.ac.kr 로 약정의사 표시
팩스	031-219-1623으로 약정의사 표시
CMS 자동이체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일정기간 자동이체로 기부 참여 (세부사항 전화문의)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아주사랑’ 친구 추가 후 문의

도전은 파란학기제의 핵심

인생은 파란학기제의 연속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고 도전해야 하는 것.

아주대학교 파란학기제는 세상과 참 닮아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좋겠다, 파란학기제가 있어서!”

그래서 후배들은 준비합니다.

더 깊이있는 삶을,

더 커다란 삶을.



장강복 | 생물공학과 85학번
KBS <인간극장>, <한민족 리포트>등을
제작한 다큐멘터리리스트입니다.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대상 수상작인 <KBS스페셜 -
플라스틱 지구>를 연출했습니다.



정다빈 | 국어국문학과 12학번 (좌)
송윤근 | 문화콘텐츠학과 12학번 (우)
파란학기제를 통해 웹드라마 제작 프로젝트에
도전, 학기 후 '밤부(bamboo) 네트워크'를
창립했습니다. 애청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스토리텔링 시스템을 기획했습니다.

<파란학기제>는 수업의 주체와 주도권이 학생에게 주어지는 도전 학기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목표와 도전 과제를 기획하면

이를 실현할 기회, 방법, 비용까지 지원하는 아주대학교의 학점 취득 프로그램입니다.



아주대학교

031-219-2021
www.ajou.ac.kr